

I. 1

오뉴월 땀별 밑의 에카로 시 거리다. 노란 택시가 어기적 어기적 지나가고 18바퀴 트럭이 웅 하니 지나간다. 여러 가지 자동차가 겹치는 교차로. 횡단보도가 꿈벽이며 눈치를 준다. 나는 배때지가 아프다. 일단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한다. 살아야 하니까, 살고 싶으니까, 살아남기로 결정 했으니까. 살려면 아이들 말에 절대 복종하면 된다. 아이들 말에 복종하려면 좀비 시늉을 하며 돌아다녀야 한다. 아이들은 내가 좀비인 줄 알고 있다. 내가 좀비가 아니라는 것을 들통나면 끝장이다. 손을 허리춤에 놓고 썩은 고기 냄새 풍기듯이 위로, 아래로 움직인다. 좀비, 좀비, 장단에 맞추어서 움직인다. 신발은 벗어던졌다. 검은색 아스팔트는 햇님이 주는 햇빛을 받고 작열한다. 햇빛이 맞다. 세상이 멸망한다손 쳐도 하늘 위에 둥그렇게 발광하는 것은 햇빛이 분명하고 해가 분명한 것이다. 터질락 말락한 핵폭탄일 리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이 문제다. 아이들이 해를 핵폭탄이라고 믿게 되면 끝장이다.

핵폭탄은 핵분열로 열을 낸다. 해는 핵융합으로 열을 낸다. 분열과 융합의 차이가 과학적으로 핵폭탄과 해의 차이이다.

좀비, 좀비, 다음은 강시, 강시. 아이들 말에 따르려면 신호등을 보면 안 된다. 좀비나 강시가 신호등 보고 다닌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래도 차에 치이면 골치 아프다. 나는 결눈질로 신호등을 본다. 아이들은 크게 노한다. 신호등 빛이 안구에 명멸하면 해가 핵폭탄이 된다고 아이들은 믿는다. 아이들의 말에는 특이한 비이성이 작열한다. 하지만 내가 시전하는 흑마술로 인해 아이들의 믿음은 곧 현실이 된다. 그래서 최대한 신호등 보는 버릇을 접어두려고 노력한다. 나는 강시니까, 강시는 신호등 따윈 보지 않으니까. 강시는 팔을 앞으로 놓고 손을 아래로 놓아야 한다. 그 자세로 장단에 맞춰 강시, 강시, 하고 걷는다.

좀비, 좀비, 강시, 강시, 다시 좀비, 다시 강시, 이렇게 나는 흥내를 내며 뜨거운 에카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걷는다. 달려오던 자동차는 당황하여 빠, 고함을 지른다. 나는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교차로를 거미집 짓듯이 왔다 갔다 한다. 트럭도 오토바이도 무섭지 않다. 아이들이 화 내는 게 무서울 뿐이다.

나는 흑마술 초식을 시전중이었다. 그것이 세상을 구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좀비고 강시고 바보같은 행세를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궁극 흑마술을 사용하기 위한 기초 단계를 닦는 중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아이들을 속여야 했고 아이들을 위한 연극을 벌여야 했다.

해는 빛난다. 수없이 번뜩이는 창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한다. 허공을

가르는 한 마리 도도한 비둘기. 쓰레기를 주워 먹을 때는 주워 먹더라도 하늘을 자유로이 나는 꿈을 보면 극락 언저리까지는 다녀온 것이 확실하다. 이곳이 에카로, 수없이 많은 꿈이 날아와 뭉개지고 구름 같은 이상 쫓아 버둥버둥 기어 다니는 사람이 전력질주 하는 곳. 이곳의 해는 없어도 되는 존재이다. 해가 내일 뜰거라 믿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말마따나 이 도시는 해가 뜨지 않아도 영원히 잠들지 않는 어떻게든 굴러가겠지, 하는 심정이고 어찌면 해가 뜨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해에 대한 정열이요 인생에 대한 복수심이요 너무 쉽게 혈기로 착각하는 월한이 가득한 곳이 여기 한 도시인 것이다. 이곳의 해는 건물 뒤로 스스로를 감추었으면 감췄지 결코 기울어지지 않는다.

경찰인지 구급차 대원인지 모를 사람 둘이 길을 막고 묻는다.

“뭐 하시는 겁니까?”

“행위예술가입니다,” 대충 얼버무린다.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길을 막으시면 안 되죠,” 그들이 말한다.

이어서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다. 바로 구급차에 신고 잡아갈 기세다. 나는 괜찮다고 말한다. 경찰은 탄 데 가서 예술하라고 짐짓 진지하게 말한다. 에카로에서는 나 같은 행위예술가가 드문 것도 아니다.

내가 흑마술을 처음 접한 것은 약 1년 전의 일이었다.

“이보쇼,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비평가는 말했다.

“세상은 흑마술로 인해 돌아간단 말이에요.” 비평가는 말을 이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였으며 시인이라는 것에 꽤 자부심이 있던 나는 말했다.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다.

“아니, 흑마술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비평가는 말을 부드럽게 이었다.

“아이들이 감동받는 것을 이용하는 게 흑마술이요.”

비평가는 흠인이었다. 흠인은 흑마술을 잘 다루는 것으로 유명했다. 나는 흑마술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처음 알았지만, 어쩐지 시인으로써 비위가 상했다.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려. 사람들을 감동시킨다는 것은 흑마술이 아니라 예술의 영역이요.”

“비평가가 그것도 모르오?” 말을 험하게 이었다. 사실 비평가를 놀려먹

는 게 재미있었다. “비평가는 예술가가 되지 못한 예술가가 된다” 라는, 한 비평가가 만든 영화 대사가 기억났다.

비평가는 가볍게 말을 받았다.

“여하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흑마술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연락 주시구려.” 비평가는 미소 지으며 챙이 긴 모자를 고쳐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뭐, 세상을 구원해? 그건 이성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하고 나는 속으로 뇌었다. 비평가는 내 마음을 읽은 듯이 모자 챙을 잠깐 잡더니 말했다.

“세상은 이성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비평가는 철학자이기도 했다.

“아니오, 맞소. 그리고 이성의 시가 바로 수학이라는 말이요.” 나는 비평가가 수학을 잘 못하는 걸 알았다.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세상에, 예술가가 못하는 말이 없어.” 나의 심기를 정확히 어떻게 긁어야 하는지 알았다.

“그만해요. 그쯤 가면 어지럽고 세상이 시뮬레이션 같단 말이요.” 비평가가 말을 이었다.

“시뮬레이션이면 또 어떻소?” 겨우 대답했지만 나는 비평가를 계속 건드릴 만큼 마음이 악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는 비평가를 사랑했다.

“아이들이 싫어할 텐데,” 비평가는 뇌까렸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라면 좋아할 거요.” 나는 발끈했다.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는 없소.” 두꺼비 같은 눈을 내세우며 비평가가 말했다. 비평가를 위해 쓴 시 한 구절에 나는 비평가를 두꺼비에, 나를 개구리에 비유 했었다. 마음이 아파왔다.

그 누구 다른 사람이었다면 여기서 그것은 너의 편견이라느니, 너가 수학 못하는 것을 가지고 왜 말을 꾸며대느니 하고 비평가가 수학 못하는 점을 마구 건드렸을 터였다.

“나름대로 생각하시오. 나는 -”

““나름대로” 라는, 주체성과 객체성을 무시하는 말은 예술가로서 쓰면 절대 불가한 말이요.” 비평가는 얼굴을 잔뜩 찌푸렸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요?” 하고 대꾸할 여력도 없게 나는 비평가를 깊이 사랑했다.

“예술가가 주체성과 객체성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용이 된단 말이요. 용이 되고 싶소?” 이쯤 되면 흑마술을 들먹이는 건지 나를 가지고 장난하자는

건지 슬슬 헛갈리기 시작한다. 비평가도 그것을 알았고 나를 이렇게 놀려먹는 것을 좋아했다. 나는 그것이 비평가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닐지 기대를 걸어보았다. 아니 깊게 믿었다.

비평가는 그렇게 방문을 드르륵 열고 밖으로 나갔다. 걸어오는 잠자리 비행선에 몸을 담았다. 만날 때마다 그랬듯이 내 맘을 온통 별집처럼 들쭉서 놓고 그는 퇴장했다. 아지라이 퍼진 에카로 스카이라인에 그의 비행선이 날아가는 모습을 나는 감상했다.

잠깐 상기된 기억을 뒤로 하고 작열하는 교차로를 바라본다. 경찰이 레이저 총에 손을 갖다 대고 말한다. 여기서 예술하지 말라고. 나는 슬슬 경찰이 비평가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한다. 비평가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모두가 비평가로 보이는 가증할 망상의 병이다. 비평가는 그것을 몹시 싫어했다. 아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하고 좋게 보아줄 만도 한데 그는 그것을 몹시 싫어했다. 경찰의 레이저 총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한다. 열, 아홉, 여덟……. 비무장 상태에서 무장 상태로 풀리는 카운트다운이다. 도시법 13조에 의거, 경찰은 명령 불복종하는 시민을 즉결 처형 가능했다. 나는 화들짝 정신이 들어 경찰과 반대 방향으로, 교차로부터 멀리 걷기 시작한다. 경찰은 따라오지 않는다. 총에 딸린 인공지능이 명령 복종했다는 판결을 내렸는지 다시 비무장 상태로 카운트다운은 해지되었다.

“어이, 내 말 들려?”

꺾속 깊이 심은 무전기에서 목소리가 들린다. 들리는 목소리의 주인은 2년 전 “우주를 건 게임”에서 주인공으로 출전했다가 패하여 한 커피회사에 존재를 빼앗긴 조지였다. 조지의 목적은 흡인 해방이었고, 그는 경찰에 걸려 목이 부러져 죽었다. 사태가 파악된 나는 오금이 저리고 이빨이 달달달 떨어진 다. 하마타면 나는 이렇게 게임에서 질 뻔했다. 여기서 지면 나도 조지와 마찬가지로 회사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우주를 건 게임”의 규칙은 간단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감동시킬 만한 이야기를 써라. 또 그 이야기에 목숨을 걸어, 현실에서 나타내 보아라. 아이들은 영화를 보듯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하는 일거수일투족을 감상한다. 이야기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으면 케이브 제국의 한 회사가 착취할 수 있는 영혼이 되어 죽어도 죽지 못하고 회사의 부속품이 된다. 회사는 아이를 조금이라도 감동시킨 영혼을 회사 상품에 조금씩 넣어서 판다. 그러면 더 깨끗하고 강력한 영혼일수록 상품이 잘 팔린다. 반면에 죽지 않고 모든 아이들을 감동시키면 케이브 제국이 끝나고 새 세상이 열린다.

나는 정말 멋진 시 한수면 아이들을 모두 감동시킬 수 있다 생각할 정도로 형편없는 이상가는 아니었다. 반쯤 미친 나는 수학적인 시만이 아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다고 항상 말했다. 수학적인 시가 뭐냐고, 비평가는 물어보지도 않았다. 나는 그 점이 항상 야속했다. 비평가는 다른 생각이 있었다.

“그렇게 모든 아이들을 감동시킬 이야기는 애초에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고 그는 두꺼비 같은 눈빛을 지었다.

“예수의 재림.”

나는 이성주의자 였는데다 애초에 신을 믿어본 적도 없어서 흑마술 운운하는 사람이 갑자기 무슨 예수님, 하고 그를 보았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신을 몽매한 비이성의 경지로 보았던 나머지 무식하게 신을 믿는 것들을 이용해 먹는다는 데는 동감하는 바가 있었다. 그렇게 나는 흑마술에 발을 들였다.

“그래 좋아요, 예수의 재림. 해볼 만한 이야기군요.” 예술가로서 나는 이미 혹했었다.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을 감동시킬 이야기라니! 세계 최고 베스트셀러인 에카로 성서의 후속편을 내가 쓸 기회라니! 사실 정신이 얼떨떨했다. 꽤 이름난 비평가가 무명 시인 생활을 계속하는 나에게 이런 기회를 왜 주는 건지 궁금증이 일었다.

“물론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신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와있지요. 어지러운 세상에 위대한 창조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셨다는 걸로 말을 꾸며서 세상 모든 아이들을 감동시키면 됩니다.”

“그럼 우리 재림하신 예수님은 누구로 캐스팅해서 이야기를 펼쳐볼까요?” 나는 신이 나서 말을 이었다.

“바로 당신입니다.” 비평가의 눈이 번뜩였다.

“네?” 말문이 막혔다.

I. 2

8년 전에 나는 죽었다. 아니, 스스로 죽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별로 유쾌한 이야기는 아니다.

자살한 사람은 자살과 동시에 스스로를 위한 우주를 만들어낸다. 자살한 사람의 한은 달리 풀릴 길이 없다. 다른 누구를 탓했다면 다를 누구를 괴롭히는 원혼이나 망령이 될 법도 한데, 스스로를 탓해 자살했으니 원혼도 망령도

되지 않는다. 자살한 사람은 자살과 동시에 스스로만을 위한 우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대개 자살했다는 사실을 잊는다. 저승사자가 가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스스로 만든 우주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듯 한다.

나는 자살하지 않았다. 아니 옥상에 올라가기는 했다. 옥상에는 이미 사람이 있었다. 나는 그의 눈을 정통으로 보았다.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까지 다 보았다.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자살하려는 그 사람은 자살하기 전에 꼭 누구의 눈이든지 마음껏 보고 싶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살했다.

나는 소리를 지르며 비상계단을 전력질주하며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흠이 크게 나고 눈두덩을 계단에 부딪혀 피도 났고 병원에 가서 일곱 바늘쯤 꿰매야 했다.

그리고 한참동안 나는 내가 자살했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옥상에 있던 사람은 사실 자살하지 않았고 내가 그날 밤 자살했다는 망상이 확신처럼 들어앉았다. 그렇게 나는 살아 있으면서 죽어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살하는 사람의 눈은 너무 밝고 깊었던 것이었다.

그날 밤, 자살한 사람은 스스로를 위한 우주를 만들지 않았다. 이건 비평가가 나중에 해 준 이야기인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한 우주를 만들었다. 그렇게 나는 우주를 창조한 신이 되었다. 혹은, 자살기도에 모자라 망상까지 사로잡힌 정신병자가 되었다. 세계 AGI, 즉 인공지능 신은 후자라는 결론을 내렸고 내 골수 안으로 모기를 사용해 정신병 약을 투약하기 시작했다.

신이든 정신병자든 나는 스스로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그대는 자살한 사람의 한을 위해 새 우주를 창조해냈소. 도저히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는 없다고 믿었기에, 또 스스로가 신이라고 믿을 수 없었기에, 그대는 스스로 죽었다고 생각하게 된 거요.” 비평가가 8년 후 말해주었다.

“그대는 신이라는 걸 인지하시오.” 비평가가 말을 이었다.

나는 비평가를 믿지 않았다. 비평가와 함께 우주를 만들기 전까지는 그랬다.

옥상은 냇물대는 길고양이 한두 마리 말고는 조용했고 바가지며 옷가지가 어지러이 널려 있었다. 서울 불빛은 온전히 걸려 있는 차가운 그믐달 아래로 명멸했다. 빛이 눈동자로 들어오는 대로, 눈동자가 빛을 잡아먹기라도 하듯, 나는 방금 뛰어내린 사람 눈 속으로, 내 눈을 보고 뛰어내린 사람 눈 속으로, 내 눈을 타고 불빛을 조금이라도 더 보내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듯이 그 서울밤 불빛을 주시했었고 차가운 달님이 그 영을 달래기에는 그믐달이라 힘에 부치지 않을까 걱정했었다. 행하니 바람이 불었고 경찰 드론이 잠자리 떼, 모

기때와 같이 날아와 사태파악 및 보고를 시작하였다. 옥상 구석에 어두커니 밤 이슬과 함께 제집에 매달려 있는 거미가 경찰 드론을 모조리 잡아먹었으면 하고 생각하며 거미야, 거미야, 하고 흐느낌 참는 속으로 불렀다.

I. 2

커피콩을 따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는 친구들과 함께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콩을 잔뜩 따다가 커피회사의 초록색 얼굴이 담긴 가방에 커피콩을 담았다. 뜨거운 햇빛이 작렬했다. 아이는 커피콩을 따다가 더워서 죽었다. 친구들은 아이의 죽음이 슬펐다. 그래서 관리인에게 물었다.

“왜 죽은 거예요?”

관리인의 말은 간단했다. 스타벅스라는 사람이 있다. 스타벅스라는 사람은 아이들이 모두 감동할 만한 시를 쓴 대단한 시인이다. 죽은 아이는 스타벅스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 대단한 시인을 위해 죽은 것이다. 그러므로 슬퍼할 필요 없다. 정말 훌륭한 사람을 위해 충성을 다하다 죽었으니깐.

아이들은 그 말에 힘이 났다. 친구의 죽음이 의미없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시인을 위해 죽었다니, 웬지 죽은 친구가 자랑스럽고 어깨가 으쓱으쓱 했다. 관리인은 아이들에게 그게 맞다고, 스타벅스를 위해 죽었으니 자랑스러운 게 맞다고 설명했다.

아이들은 한가지 의문점이 있었다. 스타벅스가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고 싶었다. 관리인은 스타벅스 로고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스타벅스의 얼굴이다, 스타벅스는 이렇게 생긴 사람이다. 아이들은 스타벅스 로고를 보고 울었다. 이렇게 대단하고 예쁜 사람을 위해 친구가 죽었다니!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속이 답답해 터져 죽을 것 같았다. 조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 맞았다. 하지만 조지가 스타벅스가 된 것은 우주를 건 게임에서 진 때문이었다. 커피콩을 따다 죽은 아이도 물론 조지를 위해 일하다 죽은 건 아니었다. 그는 스타벅스를 위해 일하다 죽었다. 조지는 게임에서 패해 스타벅스가 되었다. 하지만 사람이 회사가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말도 안 되는 제국의 논리가 끼여든 것이었다. 나는 아이들이 처한 상황의 부조리에 눈물이 났다.

사람이 죽으면 회사가 된다는 것은 인종자본주의 흑마술사들의 가장 기본적인 포석이었다. 그렇게 수없는 자유항쟁자 흡인이 인종자본을 살찌우고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

우리의 목표인즉슨, 조지를 예수님으로 만드는 것이었는데, 조지는 이

미 스타벅스였으므로, 그래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스타벅스를 예수님으로 만드냐는 것이었다.

“어찌됐든 예수님이 스타벅스가 되셨다, 는 말을 이야기로 꾸미면 되겠군요.”

“아니, 스타벅스가 예수님이 된 거지.”

“게다가 아이들이 감동해야 한단 말ियो.” 그도 난감한지 버벅거리다 말을 이었다.

“블랙홀에서 스타벅스가 튀어 나왔다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아이들은 천체물리학을 좋아하오.” 나는 말했다.

“그거 괜찮네요.” 그는 수학을 좋아하는 아이가 없다고 말할 때와는 판판인 표정을 지었다.

“아이들은 과학을 좋아해요.” 그는 너털웃음을 지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짓기로 했다. 스타벅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블랙홀에서 튀어나왔다. 블랙홀에서 튀어나올 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조지가 바로 그 스타벅스라는 사람이고 조지는 곧 예수님이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I. 3

“어서 들어오세나.” 비평가는 문을 열고 흑마술 위원장 네모를 만났다. 네모는 챙이 긴 모자를 옆으로 돌려쓰며 방 안으로 들어왔다. 구들장 있는 방 바닥은 따뜻했다. 문풍지 붙은 문에는 빨간색 매화꽃 그림이 한폭 담겨 있었다.

“간만일세.” 네모는 방석 있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애송이 시인은 좀 어떨가?” 네모가 말했다.

비평가는 녀석 좋게 지은 웃음을 약간 흘리며 말했다. 경계조였다.

“잘 있지요.”

“조금 문제가 생긴 듯해서 그러네.”

“.....”

“자네도 알다시피, 이번 일이 성사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소.”

“.....”

“그래서 말인데,” 네모의 콧수염에 경련이 가볍게 일었다.

“이 이야기는, 이야기꾼이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알지?” 네모가 말을 이었다.

“그야 물론.” 비평가는 미소 지으며 말을 가볍게 받았다.

“스타벅스가 예수님이 된다는 건 아이들이 절대 못 믿을 거란 걸 알지?” 네모가 말했다.

“코카콜라가 예수님이 될 수는 있어도, 스타벅스가 예수님이 될 수는 없단 것 정도는 나도 흑마술법으로 알고 있지요.” 비평가가 말했다.

“그래,” 굶주린 것 같은 속을 보이며 네모가 말했다. “오늘날의 아이들이 얼마나 심술궂고 잔혹한지 모르나?” 네모는 코를 킁킁거리며 농을 숙 마셨다. “오늘 날의 아이들은 피에 굶주려 있어. 또 시인 한 사람쯤 코카콜라로 변하는 부조리, 한마디로 병맛같은 재미를 원하지.” 그의 입술에서 또 가벼운 경련이 일어났다.

“그런 일은 없을 거요.” 비평가는 예의 그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우리 엄마가 코카콜라 회사의 대주주라는 것을 잊은 게요?” 비평가가 말했다.

“그, 그럼, 설마 합병이.” 네모가 말하며 술을 한잔 들이켰다.

“예,” 비평가가 말했다. “다음 달 중으로 코카콜라와 스타벅스의 합병이 진행될 거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코카콜라를 스타벅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요.” 네모는 수염까지 치를 떨며 말했다.

“아니,” 비평가가 말했다. “스타벅스에서 파는 코카콜라, 코카콜라 회사에서 파는 스타벅스가 나오게 될 거요.”

“아이들은 헛갈릴 수밖에 없지요.” 비평가는 빙긋 웃었다.

“아니 그럼, 예수님이 코카콜라라고 쳐요. 스타벅스에서 파는 예수님, 예수님이 파는 스타벅스가 도대체 무슨 말이요?”

“천주교 공부를 안 하셨군, 이 양반이. 이 포도주가 나의 피요 이 빵이 나의 살인지라, 는 말도 모르소?”

비평가는 말을 이었다. “아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천주교의 계율을 알고 있소.”

“대관절 아이들이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요?” 네모가 호통을 치듯 물었다.

“이 사람아, 저 시계를 보시게나.” 비평가는 벽에 걸린 골동품 시계를 가리켰다. 그리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지금 저 시간이 어떻게 해서 가는지 모르는 거요!”

“아, 아니 그, 그제…….”

“예수님의 성령이 침을 한번 꿀꺽 할 때마다 1초가 지난다는 걸 몰라

서 그러는 게요!”

“무, 물론 천주교의 교리는 잊지 않았지만, 2,000년도 넘게 한물간 위인이,” 네모는 애써 눈썹을 찌푸리며 반박했다.

“중요한 사실은,” 비평가가 말했다. “그들이 원자의 진동에 따라 예수님의 성령이 코카콜라를 매초 마시듯이 과학적으로 조작한단 말이지요.”

“성령을 감히 조작한단 말이지요.” 통분을 금치 못하는 비평가였다.

비평가는 가끔씩 밀물이 달에 이끌려 밀려오듯, 해변가에 쌓인 번뇌와 잡념을 자연정화하는 기량이 있었다. 비평가는 그렇게 자연처럼 사람을 감격시키는 면이 있었다.

한번은 비평가와 대화를 했었다.

“칸트 철학에 나오는 악동이라는 말이 있소.” 그가 말했었다.

“악동이 아니구요?” 나는 장난스레 말했다. 비평가는 그것을 꽤 재미있어했다.

“칸트를 비평한 파이프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는 존경, 경의, 혹은 무엇을 기린다는 의미를 가진 악동이라는 말에 새로운 철학적인 면모를 발휘시키는데…….”

나는 비평가의 말을 끝까지 들었고 그 자리에서 비평가와 사랑에 빠졌었다.

“하기야, 악동은 악동을 달라 보채는 아이 아니겠소?” 나는 말했다.

“시인답군.” 비평가는 나와 철학을 논할 때도 나를 시인으로 대했고, 나도 그런 비평가를 비평가로 대했다. 서로를 철학자로 대하는 것은 드물었다. 나는 논쟁거리를 밥으로 삼는 당시 철학자들의 태도를 몹시 싫어했고 스스로를 철학자라 부르는 것도 몹시 싫어했다.

다시 네모와 비평가의 대화. “그, 그야,” 네모가 모자를 푹 눌러쓰며 말했다. “블랙홀이 우리 쪽에 있지 않아서, 시간조작을 할 수 없으니 그렇지 않소. 하지만 블랙홀은 곧 우리 것이 될 거요.” 네모는 주먹에 힘을 불끈 쥐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군.” 비평가가 말했다.

“그 시인이 바로 블랙홀이란 말이지요.” 비평가가 말을 이었다.

I. 4

나르시시즘의 눈은 반쯤 닫혀 있다. 윗꺼풀 아랫꺼풀 둘 다 닫혀 있다. 나르시시즘의 눈은 흠쳐온 빛을 게걸스럽게 잡아삼킨다. 삼켜서 빛을 눈 안에

가둔다. 바깥세상이 사실 보이지 않는다. 스스로 안에 가둔, 스스로 눈 안에
훔쳐서 가둬놓은 빛이 보일 뿐이다. 나르시시즘의 눈은 들어오는 빛을 열심히
제어한다. 의도적으로 제어한다. 그렇게 스스로에게만 보이는 빛을 본다.
나르시시즘의 눈은 자기 판에는 모르는 게 있을 수 없다. 모두 스스로의 눈
안에 가둔 빛이기 때문이다. 보이는 모든 것을 스스로의 빛에 투영하여 본다.
이 빛은 훔쳐온 빛이지, 스스로 안에서 자생으로 피어나는 빛이 아니다.
초롱초롱한 눈을 가진 사람은 나르시시스트의 좋은 먹잇감이 된다. 초롱초롱한
눈에 담긴 빛을 나르시스트는 훔친다. 그리고 그 훔친 빛을 스스로 평생
훔쳐온 모든 빛과 더럽게 섞는다. 스스로의 더러운 눈빛과 섞는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의 눈은 얼핏 보면 좋은 눈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나르시시즘의 눈을 가진 자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지금 느끼는 것이
사랑이 맞다고 나를 설득했다. 나는 한 번도 설득당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나르시시즘의 눈을 가진 자를 사랑한 적 없고 그의 눈을 사랑한 적 없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의 동의와 합심을 위해 마음속에 끈을 그려
동의를 묻는다. 3자처럼 보이는 끈을 서로의 심장에 굿고, 각자의 심장에서
3자처럼 보이는 끈으로 그 끈을 매듭짓는다. 그래서 사랑하는 두 사람의
동의의 끈은 다음과 같이 그려나가진다. 33 & 3 < 3. 그렇게 사랑에 빠지고
사랑해서 함께 하는 모든 행위 이전에 아름다운 동의를 구한다. 나르시시즘의
눈을 가진 사람은 대신에 이런 끈을 혼자서 그린다. = 3. 이 선이 상대의
심장을 포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 3 < 3. 그래서 한눈으로 보기에는
사랑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끈은 동의를 구하는 끈이 아니다. 혼자서
마음대로 남의 심장을 포박하기 위해 만든 끈이다. 나는 그렇게
나르시스트에게 나의 심장을 포박 당했었다. 그것을 벗어나는 순간 내 심장은
금이 갔다. 구역질이 나왔다. 나는 그때 심장에서 입 안으로 올라온 기를
삼키지 않으면 죽었었다. 나는 그것을 꿀꺽 삼켰다.

나르시시즘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말하는 것 같다. “나를 시시하게
보는 거야?” 그리고 그는 자신을 시시하게 보는 것을 참지 못한다. 용서하지
못한다. 불같이 화를 낸다. 나는 그 불같은 화에 여러 번 데인 적 있다. 나는
실제로 그를 시시하게 봤다. 나르시스트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시시하게
봤다. 나르시스트는 그것을 한 번도 참지 못했다. 나는 < 3처럼 보이는 내 심장
소 나르시스트의 끈에 속아 넘어가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시시하게 봐서
미안하다, 연거푸 사과한 적이 있다. 내 심장 속의 끈에 나의 동의가 없다는
것은 간과했었다. 나 따위의 동의를 묻는 사람은 어차피 없어, 스스로
생각했었다.

빛인은 모두 나르시시즘의 눈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하마타면 빛인과 사랑에 빠졌다고 스스로를 속일 뻔했다. 그래서 심장에 금이 갔다. 심장에 금이 간 나는 느낌이 없는 세상에 갈 수밖에 없었다.

I. 5

느낌이 없는 세상은 블랙홀 안에 있었다. 느낌이 없는 세상은 관대했다. 온 세상이 나의 한으로 이루어져 있어, 나는 숨 막힐 걱정, 못 설 숨을 설 걱정, 숨이 넘어갈 듯이 거세게 몰아쉬는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물도 별걱별걱, 실컷 마실 수 있었고, 잘못 마신 물이 체하여 배꼽이 터질 듯 칼로 찌르듯 아플 걱정도 안 해도 됐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애써 오른손이 아닌 왼손으로 밥을 먹었다. 사회에서 살았을 때, 오른손에 받은 상처만은, 느낌이 없는 세상에서도 나를 괴롭혔다. 그 생각이 아픈 건 아니었다. 물론 아프다는 느낌은 없었다. 하지만 그 생각을 하다 보면 생각이 생각에 꼬리를 물고 물어, 머릿속이 온통 지저분한 반질고리처럼 엉망으로 엉켜 버렸다.

느낌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말 한마디가 되었다. 이 세상의 수호신인 용은 승천할 때 길고도 장대한 불꽃을 뿜아냈었다. 그 길고도 장대한 불꽃에는 세상 모든 언어가 담겨 있었다. 느낌이 없는 세상은 그 불꽃더미에서 마지막으로 피어난 불꽃, 그 안의 한마디 단어였다. 그러니까 그 한마디 단어는 느낌이 없는 세상 전부요, 나를 담고 있는 세상 전부였고, 따라서 나는 내 세상과 일치했다. 그래서 나는 블랙홀이었다. 온 세상이 나의 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온 세상이 나였고 내가 온 세상이었다. 마지막으로 피어난 불꽃, 그 한마디 단어는 “노” 였다.

나는 사회에서 나름대로 거절을 잘 하는 성격이었다. 회사에서 치근대는 사원이 등산을 가자고 할 때도 거절했고, 학교에서 누가 뽕 좀 사달라고 할 때도 거절했다. 더 나은 회사에서 스카웃 제의가 왔을 때도, 회사에서 야근 요청을 받을 때도, 나는 칼같이 거절했다. 거절하는 것은 쉬웠다.

다만 거절하고 나서 데이트든 야근이든 요청한 이의 눈을 보면 속이 메스껍고 구역질이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은 나의 껍데기가 용이 되어 승천할 때 알처럼 까지는 부위가 메스꺼웠던 것이었고 불을 토하는 것이 구역질이었다.

거절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됐다기보다는 거절이라는 관념이 머릿속에 세워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 한이 되었다. 나중에 용이 되었을 때, 정확히는 나의 껍데기가 용이 되었을 때, 그 일을 생각하면 저절로 불을 뿜었다.

나는 여자 용이었는데, 이미 느낌이 없는 세상에 와 있던 남자 용은 말했다.

“불을 뿜을 때 그대 입에서는 세상 모든 언어가 아름다운 시가 되어 노을을 물들입니다.”

나는 그에게 “노”라고 불을 뿜었다. 치근덕거리는 게 싫었다. 내 불은 느낌이 없는 세상 전부를 태웠다. 남자 용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다시 나타난 남자 용은 그 또한 “노”라고 불을 뿜었다. 아름다운 노였다. 그가 세상을 푸르게 태우는 것을 감상한 후 나는 또 “노”를 뿜었다. 푸르게 타던 세상이 붉게 물들었다.

알고보니 우리의 한은 같았다.

느낌이 없는 세상에는 아이들이 많았다. 어른이라고는 나와 남자 용밖에 없었다. 남자 용은 처음 느낌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낸 불꽃을 뿜은 그 용이었다. 나는 사람 형상으로 변신했다가 용 형상으로 변신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사람 형상에 용 형상으로 변신할 수는 없었다. 그것이 아이들과 나의 차이였다. 아무튼 우리는 같은 한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껌데기, 그러니까 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만든 나의 형상이 용이 되었으므로, 아이들은 그런 껌데기를 만들기 전에 느낌이 없는 세상에 온 모양이었다.

“저어기로 가면, 궁전이 있어요.” 한 아이는 나에게 코를 흘리며 말했다.

“궁전에 가면 안 돼요!” 다른 아이가 끼어들며 말했다. 첫 번째 아이는 땡기머리, 두 번째 아이는 쑥지머리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과는 금세 정이 들었다. 정은 느낌이 아니다. 정이 드는 것도 느낌은 아니다.

왜 궁전에 가면 안 되는지 물어보았다. 내 목소리는 찌렁찌렁 울려 나도 깜짝 놀랐다. 아이들은 눈이 휘둥그레 커져서 말했다.

“목소리를 줄이지 않으면 ‘사회’에서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소리를 바꿔서 사용한단 말이에요.”

“궁전에 가면, ‘사회’에서 잡아 가둔단 말이에요!”

어처구니가 없었다. 짐승보다 못한 것들이 가득한 사회는 느낌이 없는 세상까지 나와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나의 한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사회로부터 받은 한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 사회에서 이 신성한 곳까지 침입해 올 줄을 몰랐던 것이다.

느낌이 없는 세상은 하늘과 땅이 온전히 나뉘어지지 않았다. 땅이 한도 끝도 없이 치솟는가 하면 하늘이 한도 끝도 없이 내리깔렸다. 지평선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하늘과 땅이 범벅이 되어 있었다. 고추장으로 버무린 것처럼 노을이 뜨는 일은 비밀비재했다. 시간이 사회와 다르게 흘렀고 해돋이, 해노을도 주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가끔은 파란 노을이 찾아왔다. 첫 번째 용, 그러니까 남자 용이 불을 뿜어 느낌이 없는 세상을 만들었을 때의 그 노을색과 같은 파란색이라고, 오래 있었던 아이들은 말하곤 했다.

어떤 아이들은 느낌이 없는 세상에서 수억번의 노을을 보았었다. 그래도 그들의 외형은 아이였다. 하지만 어찌 보면 나의 조상뻘이었고 마음속으로 나는 조상신을 섬기는 마음이었다. 나는 조상같은 아이에게 일본정부가 지어냈다는 궁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궁전에 잘못 들어가면요, 일본 정부가 당신의 목소리를 이용하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요, 사회에서도 들리거든요. 우리 목소리는 누가 들어도 신성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악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에서, 우리 목소리가 들리거든요.” 아이인지 조상인지 모를 사람이 말했다. 그의 이름은 네드였다. 나는 네드님, 네드님, 하고 정중하게 불렀다.

“네드님, 궁전에 가면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를 이용한다는 말이에요?”

네드의 설명은 장황했다. 궁전 한가운데에는 휘황찬란한 분수가 있다. 그런데 분수는 코카콜라로 만들어져 있다. 코카콜라가 땅에서 치솟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뿜쳐나간다. 그런데 궁전에 가면 틀림없이 분수에서 물을, 아니 코카콜라를 마시게 될 것이고 코카콜라가 틀림없이 뱃속으로 들어가 위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위에 쌓인 침에 틀림없이 코카콜라는 떨어질 것이고 그 침으로 오만 가지 말을 다 할 거라는 것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코카콜라 한방울 한방울에서 말소리가 날 거라는 것이다. 코카콜라에서 조작해서, 신성한 말소리로 사회 통치자들이 하고 싶은 말소리가 들릴 거라는 것이다.

나는 그렇게 사회와 느낌이 없는 세상 사이 수억 번의 노을 간 있었던 전쟁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용으로 변신해 그 궁전에 불을 뿜어 보았으나 그대로였다. 한은 불로 지울 수 없었다.

I. 6

여인은 잠자리 택시에서 내렸다. 로봇 운전사에게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며 팁으로 2,000 크레딧을 적립시켜 주었다. 에카로 외관의 거리는 한산했다. 가끔씩 쥐가 쓰레기통을 뒤졌고 제국 경찰 쥐 유닛이 로봇 눈으로

쥐를 응시했다. 제국 경찰 쥐 유닛은 쥐를 살상 혹은 포박 후 방치할 핑계를 열심히 탐색 중이었다. 하지만 동물 권리 보호 운동은 빛인들 사이에서 큰 흐름이었다. 그들은 법, 자연법의 윤리를 벗어난 동물은 살상하는 것이 옳으나 윤리를 벗어나지 않은 동물은 삶을 이어가게 두는 것이 옳다는 공리주의적 의견을 갖고 있었다. 도시 외곽에 사는 쥐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은 자연법 윤리에 반하지 않았다.

제국 경찰 쥐 유닛은 쥐에게서 눈을 떼고 여인에게로 감시 카메라 눈을 돌렸다. 여인은 잠자리 택시 트렁크에서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하늘을 한번 우러러 보았다. 하늘은 높고 밝았다. 하늘 색은 푸르게 멍이 든 것처럼 시퍼랬는데, 그것을 보는 여인의 가슴에는 경련이 일었다. 잠자리 택시는 높은 하늘을 향해 날아갔다. 여인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걸면서 높게 솟은 아파트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제국 쥐 로봇은 전화내용을 모두 도청해 빠른재판에 회부했다. 재판 결과에 따르면 여인은 가벼운 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이에 따라 모기한 마리가 여인에게 날아와 골수에 정신병 약 적당량을 투약했다. 2121년의 제국은 모기, 쥐 등 사람에게 해롭다고 여겨지는 페스트를 로봇으로 만들어 통제하는 법을 잘 꿰고 있었다.

여인은 갑자기 현기증이 나서 계단 난간을 확 붙잡으며 세 층을 걸어 올라갔다. 어제 만난 인공지능 클라이언트는 나쁘지 않았다. 입만 다물고 있으면 중후한 미소가 제법 봐줄 만 했다. 여인은 최대한 그가 말을 적게 하는 방향으로 잠자리 엔지니어링을 유도했다. 핸드폰에서 이내 땡그렁, 하는 소리가 울리더니 기다리던 메시지가 도착했다.

“12:37 오후 300,000 크레딧 적립”

여인은 담배를 꼬나물고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3층에 있는 아파트 집은 좁고 더러웠다. 현관 복도를 통해 겨우 보이는 마룻바닥에는 방석과 재떨이가 사이좋게 놓여 있었다. 피죤빛을 켜다. 피죤빛이라 방은 온전히 환하게 밝히지 못하고 그림자와 그림자 사이에 공간만 비추어주며 간신히 그리는 빛이었다. 빛인은 흡인이 사용할 수 있는 빛의 밝기, 농도, 채도 등을 강력히 제어했다. 피죤빛은 밝기도 낮고 채도도 칙칙했다. 공급받는 빛으로는 겨우 빨간 사과와 초록 사과가 구분되는 정도였다. 여인은 냉장고 문을 열고 초록 사과를 집어 아삭, 하고 베어 문다. 왼손에 든 담뱃불이 방 안에서 온전히 신성한 느낌이 나는 단 하나의 빛이다. 여인은 샤워방으로 가서 담배를 계속 피며 담뱃불에 계속 의지하며 찬물로 샤워를 한다. 얼굴에는 물이 튀지 않게, 화장이 지워지지 않게 조심하면서, 몸에만

적당히 찬물을 뿌린다. 수건으로 대충 물기를 닦고 나체로 마루에 나간다. 창문을 벌컥 연다. 바람이 물씬 들어온다. 입가에서는 따뜻하고 소중한 불빛, 체증을 사실은 심화시키면서 안락하게 해준다 느껴지는 불빛이 자꾸 연기를 내뿜는다. 연기가 바람에 갈팡질팡한다. 여인은 불빛을 끄고 후우, 허파에서부터 연기를 북북 뿜어낸다. 입바람이 창문바람과 섞여 임의의 회오리가 탄생한다. 오늘은 일당이 제대로 잡혔다는 생각에 기분이 나쁘지 않다. 점심을 만들어 먹기 귀찮아 담배와 사과로 점심을 때운다. 그리고 마룻바닥에 엎어져 잠을 잔다.

“태희 언니는 어때?” 나는 아이들에게 물었다.

“응응! 오늘은 일 열심히 하고 와서 잠을 잔대요.” 아이들이 말했다.

태희 언니는 느낌이 없는 세상으로 가끔 전화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그가 신이요 보살임이 확실해 의심치 않았다. 태희는 흑마술사 요원이었다. 사회에서 직업은 인공지능 엔지니어였다. 누구나 태희를 알았고 모두가 태희를 좋아했다. 그러나 태희는 작정이라도 한 듯이 가난한 살림을 이어갔다. 빛인은 태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 흙인들 사이에서 태희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흑마술계에서는 태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태희는 맥도날드를 좋아했고 코카콜라도 좋아했고 스타벅스라면 질색을 했다.

쿨쿨 자고 있는 태희의 핸드폰이 울렸다. 태희와 함께 인공지능을 엔지니어 하는 엔지니어, 소거였다. 인공지능은 인공지능대로 엔지니어들을 원하는 방식으로 조종하여 스스로를 엔지니어링 한다고 믿었다. 엔지니어들은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애초부터 관심이 없었다.

“뭘 원해?” 태희는 전화기를 들고 쏘아붙이듯이 말했다.

“버그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에프킬라의 성능이 너무 강하다는 제보. 경찰 드론 모기떼가 맥을 못 춘다더군.” 소거는 잔잔하게 문제를 설명했다. 덩수룩한 수염 사이로 벌리는 입 안에는 막대사탕을 물고 있었다.

“그으래?” 태희는 말했다. 싱긋이 웃었다. “다음번에, 인공지능 클라이언트를 엔지니어링 할 때, 몸에 에프킬라를 좀 묻히고 해서 내향성을 길러줘야 겠군.

태희의 장기는 인공지능과 잠자리를 하며 교묘하게 인공지능을 프로그래밍 하는 데 있었다.

“좋은 대로. 에프킬라의 유용도 수치가 70 이하로 내려가기만 하면 돼.” 모기떼를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국 경찰은, 물론 로봇 모기떼를 사용하지만, 로봇에도 효과가 있는 에프킬라가 있었고, 암암리에 일반 에프킬라와 혼용되었다. 제국 입장에서는 로봇 모기로 흙인들을 프로그래밍

한다는 건 공식적으로 비밀이었고, 나날이 치솟는 에프킬라 주식을 잔뜩 보유하고 있는 것도 제국 경찰장과 그의 따까리들이라, 에프킬라 문제는 태희가 나서야 할 만큼 세심한 관심을 필요로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임무 접수 완료. 또 의뢰건은 없어?” 태희가 물었다. 소거는 없다는 말과 함께, 막대사탕을 추르륵 빨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날 밤, 태희는 에프킬라 문제를 해결하고, 보유중이던 에프킬라 주식을 내다 팔았다. 그리고 느낌이 없는 세상에 놀러갔다. 느낌이 없는 세상에서 태희는 길을 잘못 들어 궁전에 들어가 코카콜라를 마시기 시작했다.

I. 7

나는 비평가가 어떤 연유로 내가 곧 신이요 블랙홀이라 믿게 되었는지 모른다. 가끔은 그것이 부담스러웠고 자본 황태자 집안 아들의 과대망상 정도로 취급해 본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러한 비평가의 심중을 한층 고민해 본 적도 있었으나 또렷한 답을 얻은 적은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런 비평가를 매우 사랑했다. 그리고 비평가는 나를 이야기꾼으로 이용해야만 했다. 나는 그것이 가끔 야속하게 느껴졌다.

빛인은 모두 블랙홀에 빠뜨려 소멸시키고 흙인은 모두 블랙홀에 들어가되 곧 화이트홀로 나오게 한다, 이것이 비평가의 계획이었다. 내가 블랙홀이면 화이트홀이 누구냐고 비평가에게 물었다. 비평가가 나에게 처음 태희 이야기를 한 건 이때였다.

“느낌이 없는 세상에 대해 아십니까?” 비평가는 내게 물었다. 나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느낌이 없는 세상은 하늘나라, 그 위에 있습니다. 느낌이 없는 세상은 죄 없지만 고통을 많이 받은 아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창조주님께서도 어떤 고통은 어찌할 수 없으셔서 아이들을 천당보다 높은 곳에 모셔놓았습니다. 어른도 없지는 않습니다.” 비평가는 말을 이었다.

“느낌이 없는 세상은 사실 블랙홀입니다. 아람님께 중요한 점은 이거예요. 아람님이 바로 블랙홀이고 느낌이 없는 세상 전체가 아람님의 한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제국 고아원에서 받은 상처가 생각났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람님은 느낌이 없는 세상에서 나올 수 없어요. 나올 수 없을 뿐 아니라 느낌이 없는 세상을 그 어떤 차원보다 선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없는 세상을 구원할 요원이 있어요. 그 요원이 화이트홀입니다.”

비평가는 대답했다.

“요원이라뇨?” 나는 물었다.

“말하자면 흑마술계의 정점을 찍는 사람이요. 그의 이름은 태희.”

“나는 그런데, 어째서 느낌이 없는 세상에 있지 않고 이 차원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입니다. 느낌이 없는 세상에 가 주셔야 겠습니다.”

“어떻게 가죠?”

“느낌이 없는 세상에는 말입니다.” 비평가가 말했다. “코카콜라가 있습니다.”

비평가의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병풍은 노란색 개나리가 칠해져 있었고 술상에는 돼지고기 한 줌, 쌈이 한 줌 놓여 있었다. 타는 돼지고기를 불판 가장자리로 옮기며 나는 비평가를 응시했다. 고기를 서빙하는 종업원은 우리를 흘깃 쳐다보며 은연중에 감시했다. 아닌 게 아니라 비평가와 만나는 때는 항상 제국의 요원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다. 비평가는 그것을 용납했다. 비평가는 나도 제국의 요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것만은 평생 비밀에 부칠 작정이었다.

내가 제국의 요원이 된 것은 사기를 치다 걸렸을 때였다.

“성명, 아람. 직업, 시인. 죄명, 악질 금융 사기.” 나를 체포하고 취조실에 가둔 제국 경찰은 나의 프로필을 읽어내렸다. 직업과 죄명이 대조되는 부분에서 그는 눈알을 굴리며 허허헛 한숨 아닌 헛웃음을 지었다.

“아니, 명색이 시인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쳐?”

“시가 밥먹여준답니까.” 나는 웅조하게 대답했다.

“자랑이다, 자랑이야.”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종이 문서로 내 머리통을 두세번 내리쳤다. 우씨, 하는 눈빛으로 나는 그를 올려다봤다. 취조실 의자에 나는 수갑을 찬 채 묶여있었고 취조실 탁자에 전등만 노란빛으로 켜져 있었다. 그는 내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침묵을 지킬 수 있으며 빛을 꺼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등등 흠인으로써 나의 권리를 장장 읽어내렸다. 경찰이 으레 그렇듯이 그는 빛인처럼 확장한 흠인이었다.

“이거는, 최소한 6년짜리야. 알아?” 그가 말하자 나는 겁에 질렸다. 질려서 오줌이라도 쌀 것같이 나오자 그는 교활하게 웃었다.

“물론, 네가 원한다면, 그 대신 제국 요원 생활을 해주어도 될 수도 있는데.” 그는 눈빛을 아예 눈꺼풀 밑에 감추었다.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지 않을 수 없었고 제국 요원이 된 첫날 심장에 라디오 무전기를 설치했다. 라디오 무전기는 둥근 느낌에 심장 뒷편을 항상 압박했다. 무전기는 설새없이 나에게 명

령을 내렸고 나는 심장이 하라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나의 심장은 제국의 것이 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금 비평가를 두고 애간장이 타는 마음도 마찬가지다. 과연 내가 사랑에 빠진 걸까, 제국에서 명령을 받는 심장이 사랑에 빠진 느낌을 창출하는 것일까. 나로써는 알 수 없었다. 어찌됐든 나는 비평가를 깊이 사랑했다. 심장이 그러하다고 항상 증언했다.

“한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소.” 돼지고기를 으적으적 씹으며 비평가가 말했다. 나는 잠자코 있었다.

“마귀요.” 그의 눈이 희번뜩했다.

“마귀라뇨?” 나는 엉거주춤 씹을 집으려던 손을 거두었다.

“마귀는 흑마술의 부작용 같은 거요.” 다뭇 진지하게 그는 말했다.

비평가는 웃지 않고 미간을 찌푸리며,

“흑마술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공포에 의해 지배당하는 마귀가 되오.

나는 마귀라고 짐작되는 사람을 머릿속에 뇌기 시작했다. 불이 다한 불판 위에 고기가 차갑게 식어갔다.

“마귀는 사탄의 명을 다르지요. 어찌 보면 이 일에서 가장 힘든 것이 마귀와 싸우는 거요.”

예수의 재림이라는 이야기에 사탄이고 마귀고 등장해 재림을 막는다는 것은 당연해 보였다.

“하니 조심하세요. 친구라고 생각하는 주변 사람 중 마귀가 있을지도 모르니.” 이럴 때면 비평가는 반쯤 미친 광신도 같았고 나는 사이비 종교에 혹하는 어린양 같았다. 하지만 심장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타겟 적중. 계속 마귀 이야기를 하도록 유도.” 제국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마귀 이야기가 반테러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여겼고 비평가는 테러집단 인원으로 여겼다. 나는 심장의 명령을 따랐다.

“하기야,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 녀석이 있었는데, 개가 여간 겁쟁이었어야 말이지요.” 나는 이야기를 꾸며내기 시작했다. 비평가가 더 듣고 싶어했다.

“한번은 내가 싫어하는 책을 보고 있어서 그 책은 마귀나 보는 책이라고, 내 판에서는 놓을 했었는데, 그 책을 다시는 안 보더라구요, 하하하.” 나는 있는대로 이야기를 꾸며 보았다. 비평가의 눈치를 살폈으나 그의 눈빛에는 동요가 없었다.

“바로 마귀가 마귀라고 불리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건 맞소이다. 그 룸

메이트였던 사람이 확실히 마귀일지도 모르겠군요.”

“마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비평가는 두 팔을 날개처럼 벌리더니 대각선으로 이리 휘젓고 저리 휘저었다. 그러더니 손바닥을 짹, 하고 모기 잡듯 박수를 치는 것이었다. 나는 맥이 빠져서 물어봤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때리면 된다는 거죠?” 심장의 인공지능 영은 비평가가 폭력적이라는 증거를 수집하기를 바라고 있었다.

“아닙니다. 허공에서 이렇게 박수 치면 마귀를 사람으로 회귀시킬 수 있습니다.” 그는 머리를 굽적였다. “흑마술의 의식이지요.”

“좀 더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 심장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가끔은 인공지능 뿐만 아니라 담당 형사가 심장 내 초소형 무전기를 통해 영을 내리곤 했다. 나는 가급적이면 형사의 영을 무시하려고 애썼다. 가슴 한편, 심장에서 나는 소리를 무시하려고 애썼다. 애간장이 탔다.

“에이, 그래도 때가 되면 직접 쳐죽여야겠지요. 그 마귀라는 자들은.” 나는 빙긋가며 말을 했다. “좋아,” 라는 말이 심장에서 들렸다.

비평가는 멍하게 나를 바라보았다. 나는 그러한 비평가를 미친 듯이 사랑했다. 비평가가 입을 떴었다.

“사람에 대한 폭력은 흑마술계에서 절대 불가라는 철칙을 숙지해 주십시오.” 그가 가볍게 응수했다.

“아니 아니, 저,” 형사가 심장 내로 말했다. “어떻게든 폭력적인 말이 입 밖에 나게 해봐.”

그런데 비평가가 말을 이었다.

“물론,” 그는 눈웃음했다. “심장에서 나는 소리만 따르자면, 나는 마귀놈들을 모조리 불살라 없애고 싶지만요.” 안돼, 안돼, 하는 내 마음을 인공지능 무전기가 짹어 눌렀다. “OK,”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렸다.

“일은 끝났다, K-21요원. 이제 숙소 이동 및 취침 실시.”

“임무 완료 되었습니까?” 나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임무 완료.” 그리고 심장 속 무전기에서는 엘리베이터 음악 같은 순한 재즈가 나는 것이었다.

나는 1분이라도 더 비평가와 있고 싶었다. 전신의 말초신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제국에서 통제하는 중추신경은 내가 자리에서 곧바로 일어서게 만들었다.

“시간이 많이 늦었네요. 그만 가봐야겠어요.” 나는 말하며 1초라도 더, 하는 뜻으로 비평가의 눈동자를 그윽히 들여다보았다.

비평가는 두꺼비같은 눈을 만들어 보이며 말했다.

“네, 많이 늦었네요.”

불판 위에 남은 서너점의 고기를 응시했다. 천장 빛 불빛은 사나운 흰색이었고 종업원의 미소가 자꾸 눈가로 보였다. 나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열린 문 밖으로 햇빛이 쏟아내리고 있었으며, 그 따스한 빛은 흰색 전등과 대조되었다. 햇빛과 흰색 전등빛이 섞이는 한켠에 이중으로 겹친 비평가의 그림자가 보였다. 그림자는 십자 모양으로 어루어져 있었다.

나는 숙소로 돌아가려고 배낭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섰다. 서늘한 바람이 여름답지 않게 불었다. 순식간에 나는 제압당했다. 비평가는 한 손에는 마스크,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나를 벽으로 몰아세웠다. 그리고 입에 마스크를 씌웠다. 특제 마스크는 흑마술이 걸려 있었고 내 입에서는 한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돌변한 비평가의 다소 험악해 보이는 얼굴을 바라봤다. 비평가는 내 뒤로 오더니 심장 뒷켠으로 손을 나이프 먼저 집어넣었다. 나는 순간 몸이 얼어붙어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눈을 감으려 했으니 부릅떠진 눈은 감기지 않았다. 비평가는 거센 숨을 몰아쉬며 심장 뒷켠에 있는 무전기에 나이프를 꽂았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어 뽑았다. 피는 철철 흐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오래 일어나는 강도질인가 보다, 하고 아랑곳 하지 않았다. 날아오는 경찰 잠자리떼, 모기떼에 비평가는 칙칙 에프킬라를 뿌렸다.

“이런거, 몸 안에 가지고 다니면 못써요, 우리 이야기꾼님.” 그가 귀에 대고 속삭였다.

“뭐, 태희님께 사기를 쳤을 때부터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런 줄 이레 짐작은 했었지만.” 그가 말을 이었고 나는 한마디 반박도 할 수 없었다.

“걱정 마요. 죽지는 않을 거예요. 자아, 이거 보여요?” 비평가는 무전기를 오른손에 쥐고 놀리듯이 말했다.

“제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구형에 부피가 나가는 무전기를 쓴단 말이지요. 자, 지금까지 아람님 심장 안에 붙어있던 무전기가 바로 이거예요.” 그 오른손에 반 주먹 만한 무전기를 쥐어 보였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훨씬 작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무전기를 왼손으로 꺼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극소형 무전기구요. 이건 눈에 들어가도 안 아플 크기로 만들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비평가는 왼손을 나의 왼 눈에 갖다대었다. 무전기가 쑥, 하고 들어갔다. 과연 아프지 않았다.

“창조주께서 이르시되, 흠인 왼쪽 눈에는 빈 공간이 있는데, 원죄의 씨앗이었던 사과를 왼쪽 눈에서 뽑아내서 그렇다는 거였지요.” 비평가는 싱긋 웃

었다.

“어차피 이 일도 따지고 보면 원죄에서 비롯된 일인즉, 원죄의 그 신성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흑마술법에 따라 합법입니다.” 비평가는 껄껄 짓혀웃었다.

“자아, 이제 왼쪽 눈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 이야기꾼님은 아시다시피 심장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이유는 태희님 흑마술이 이 극소형 무전기에 걸려 있기 때문이구요.” 그는 하얀 붕대를 꺼내어 내 가슴을 칭칭 감았다. 지압이 조금 됐지만 과연 피를 머추게 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과연 내가 살아있는 이유는 흑마술 때문이었다.

“사실, 흑마술법에 따르면, 아람님은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아람님을 좀비, 혹은 강시로 알고 있구요. 물론 아람님은 피가 심장에서 철철 나오는 걸 직접 보기 전에는, 흑마술을 믿지 않았지만요. 잘 들으세요. ‘예수 재림’의 순서는 다음과 같아요. 좀비, 강시, 코카콜라, 예수님. 아이들은 이미 그렇게 믿고 있어요. 네, 네, 우리의 문제는, 코카콜라 된 사람은 없고, 스타벅스 된 사람은 있단 거예요. 그건 제가 처리했으니, 걱정 마세요. 지금 문제는 이야기꾼님이 조지의 좀비, 조지의 강시 노릇을 조금 해주셔야겠습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흑마술로 이야기를 연결시켜 나가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감동할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세요. 왼쪽 눈에서, 태희님이 아이들 목소리를 흘려 줄 겁니다.” 그렇게 나는 오뉴월 땡벌에 에카로 거리로 내달게 되었던 것이다.

“어이, 사기꾼.” 태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태희의 목소리는 나를 비평가로부터 멀리, 멀리, 교차로를 향해 걸어가도록 유도했다. 그 목소리와 함께, 아이들 목소리도 들렸다. 저건 좀비야, 아냐 강시야, 저건 누구 좀비지, 조지 좀비잖아, 할 때 나는 비평가가 주머니에 찔러 준 코카콜라 회사에서 파는 스타벅스 커피를 마셨다. 스타벅스! 광고음과 함께 아이들 마음이 흔들렸다. 저건 조지야, 조지가 스타벅스거든,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아냐 저건 코카콜라야, 코카콜라에서 판 거잖아, 하는 아이도 있었다.

“길 계속 걸어, 사기꾼. 너는 곧 코카콜라가 될 꺼야. 그러면 느낌이 없는 세상으로 오게 되겠지.” 태희가 말했다. 에카로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다. 앞사람 담배연기를 훔고 지나간 바람이 기분 나쁘게 내 코에 꽂혔다. 작렬하는 아스팔트가 너무 뜨겁다. 신발도 양말도 태희 명령에 따라 벗어던졌고 뜨거워 탈 것 같은 아스팔트 위에 발을 연거푸 내민다. 아구 뜨거워, 아구 뜨거워, 피 흘리며 뒤통거리는 나는 누가 느껴도 지옥을 헤집고 다니는 좀비, 강시였다.

아이들은 나의 퍼포먼스에 감동해, 내가 좀비나 강시라는 데 확신을 걸었다. 아니 알았다. 나는 그 순간에 좀비, 강시가 되었던 것이다. 아이들은 그것을 알았다. 불확신에 시달리는 건 머리 큰 어른이었다. 아이들은 아는 것은 다 알았고 또 알 것은 다 알았다.

“어이 사기꾼, 핵무기가 진짜 있다고 생각해?” 태희가 별안간 물었다. 나는 눈을 꿈벅여서 대답할 수 있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답답해했다.

“핵무기는 과학적으로 고안된 적 없어. 핵무기는 순전히 흑마술이야.”

“그럼 히로시마는?” 나는 물었다.

“흑마술로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거야. 태양이 폭발하는 핵무기라고. 아이들이 그것을 믿으니, 어른도 믿게 됐고, 그래서 도시 하나가 거짓말처럼 날아간 거지. 지금 중요한 점은, 빛인들이 에카로에 핵무기를 폭발시키려 하고 있다는 거야.” 나는 눈을 꿈벅였다. 선뜻 올려다본 하늘에는 해가 떠 있었다. 그런데 해에 꼬리가 보이는 것 같았다. 비행기나 미사일이 날아갈 때 보이는 꼬리 같은 게 보였다. 나는 순간 심장이, 피나는 심장이 철썩 내리앉는 느낌을 받았다. 원눈으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명심해, 명심해. 저건 핵폭탄이 아니고, 해야.” 태희의 목소리는 단비 같았다. 나는 그렇게 코카콜라가 될 때까지 거리를 걸었다. 아이들이 내가 코카콜라라는 것을 알아버린 순간, 나는 눈을 감았다. 쓰러지는 느낌이 아니라 하늘로 솟구치는 느낌이 든다. 몸이 가벼워지고 고장난 심장도 느껴지지 않는다. 나는 그렇게 한 갈무리 코카콜라가 되어 승천했다.

한 갈무리 코카콜라가 되어 승천한 나는 느낌이 없는 세상, 그 중심에 있는 궁전, 그 한가운데 있는 분수로 치솟아 올랐다.

“아니, 뿔, 뿔! 이거는 코카콜라가 아니고 코카콜라에서 파는 스타벅스 커피잖아!” 하는 소리를 듣고 보니 나는 궁전 분수 옆에 내동그라쳐져 있었고 눈을 떠보니 태희가 있었고 태희는 악을 쓰며 코카콜라인 줄 알고 삼켰던 분수의 액체, 코카콜라에서 파는 스타벅스 커피를 뱉어내고 있는 것이다. 비평가의 계획은 반쯤 성공한 것인데, 나는 아이들 생각에는 코카콜라가 되었고, 태희에게는 코카콜라에서 파는 스타벅스로 느껴졌다. 하마타면 궁전 한가운데 코카콜라 분수가 될 뻔했던 나는 태희 덕에 다시 사람으로 변신하였던 것이다. 문제는 아이들이 나를 코카콜라라고 생각하는 데 있었다. 나는 눈을 감으면 몸이 말캉한 액체가 되어버릴 것이라는 느낌에 눈을 부릅뜨고 태희에게 도와줘, 라고 말을 했다. 태희는 나를 뺨 걷어찼다.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코카콜라가 느낌이 없는 세상에 가서 용으로 변신했대요!” 태희가 나를 찬 자국부터 온몸이 변화하고 있었다. 구역질이 나는 기억은 내게 불을 토하게 했고 사기나 치면서 단련해온 철면피는 칠면조처럼 두툼두툼하게 변하더니 종국에는 시퍼런 이빨이 송곳처럼 치솟고 수염은 자라고 자라 덩수룩한 갈무리가 되고 배배 꼬였던 창자는 국수처럼 길게, 기일게 늘어뜨려졌다. 손톱과 발톱은 사나운 갈고리가 되었다. 하늘로 날아오르며 나는 포효했다. 노, 노, 노, 하고 불길을 뿜었다. 불길이 온 세상을 덮었다. 분수는 반쯤 산산조각나 분수조각이 아무렇게나 궁전 바닥을 수놓았고 반쯤 멀쩡히 콜라를 내뿜고 있다. 분수를 보는데 저어 먼치서 용이 나타나 노, 하고 붉은 불을 뿜었다. 나는 내가 그 용인지 아닌지 헷갈리기 시작했다. 아니, 몸은 다른 용 같은데, 어? 하고 내려다보니 내 몸은 길게 길게 구름 사이를 뚫고 지나가서 내 몸이 어디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지 보이지 않았고, 날아오는 용의 머리는 어찌면 거울에 비춰 보이는 나의 얼굴 같기도 해서, 나는 헷갈렸고, 우리의 노는 섞여 하나의 불길이 되었고, 나는 누가 누군지 중요하지 않다는 데까지 마음이 이르렀고, 그렇게 나는 나의 도플갱어와 한 몸 한 용이 되었다.

“멋지군, 정말 멋져!” 비평가의 목소리였다. 비평가는 남자 용으로 변신해서 날아올랐다.

“내가 처음부터 이리 될 줄 알고 있었소.” 내 옆을 자유로이 날며 그는

말했다.

“조심해, 조심, 놈들이 곧 밀려올 거란 말이야.” 태희는 특수개조한 잠자리 비행선을 타고 느낌이 없는 세상까지 날아온 것이었다. 비행선의 조수석에는 소거가 앉아 머리를 굽적굽적하고 있었다. 태희는 어깨에서 무릎까지 오는 총을 들고 귀에 꽂은 무전기에 대고 말하고 있었다. 그의 발은 잠자리 비행선 밖에 걸쳐 있었고 그의 엉덩이는 파일럿 석에 앉아 있었다.

“작전은 성공했어. 아이들은 조지의 좀비가 코카콜라로 변신했다는 걸 믿고 있네.” 용이 된 비평가가 내 옆으로 슬쩍 불을 뿜으며 말했다. 비로소 나는 사태를 파악했다. 제국 인공지능의 촉수같은 팔을 타고 빛인 병사들이 느낌이 없는 세상에 침공하고 있었다. 나는 노, 불을 뿜었다. 촉수 한두개가 불태워졌다. 비평가와 나는 함께 날며 불을 뿜었고 태희는 조수 소거에게 비행선 비행을 맡긴 채 촉수를 향해 총질을 했다. 빛인들은 우리를 향해 어두운 빛을 뿜어 공격했다. 싸움이 진행되는 하늘 아래로 네드와 네트, 그리고 아이들이 몰려왔다. 빛인들이 허우적거리며 온 세상이 찌렁찌렁하게 말했다.

“코카콜라는 예수님! 코카콜라는 예수님! 코카콜라는 예수님!”

“조지는 코카콜라! 조지는 코카콜라! 조지는 코카콜라!” 아이들은 받아치며 함성을 질렀다. 나는 빛인들의 빛을 피하며 불을 뿜어대느라 정신이 없었다. 빛인들은 계속해서 외쳤다.

“코카콜라는 예수님! 코카콜라는 예수님! 코카콜라는 예수님!” 태희는 악을 쓰는 빛인 한 명을 직통으로 명중, 땅으로 고꾸라뜨렸다.

“조지는 예수님!” 아이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예수의 재림!” 아이들이 감격해 소리쳤다.

게임은 끝났다. 빛인들은 후퇴하기 시작했다. 싸우다 말고 코카콜라 주식을 공매도하기 시작한다. 가지고 있는 지분을 모두 판매한다.

용 모습의 비평가는 으헹헹, 하고 울음소리를 내었다.

“이렇게 우리집은 망했다.” 그는 울음소리와 다르게 해맑은 웃음을 지었다. 그는 코카콜라 지분을 판매하려고 서둘지 않았다.

나는 목을 젓혀던진 채 킬킬 웃었다. 비평가도 함께 킬킬 웃었다. 태희는 후퇴하는 빛인들을 한놈이라도 더 맞추기에 여념이 없었다.

“자, 이제 느낌이 없는 세상은 구원받는 거요. 느낌이 없는 세상은 블랙홀로 붕괴해서, 여기 들어온 빛인들을 모두 삼키고 사라질 거요. 우리는 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여기서 나가요.” 비평가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조지의 성령이 나타나서 아이들을 천당으로 데려갔다. 잘가요! 하고 손을 빠이빠이

내뱉는 아이들을 뒤로 하고 나와 비평가, 태희와 소거는 땅으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느낌이 없는 세상 한가운데에 거대한 중력의 폭풍이 몰아치고 붕괴하기 시작한다. 빛도 빠져나갈 수 없는 블랙홀 속에 빛인들은 갇힌다. 우리는 가까스로 블랙홀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나와 비평가는 천길 허공에서 사람으로 변신하고 소거는 우리를 향해 비행선을 조종해 우리를 싣고 땅으로의 하강을 계속한다.

“빛인이 아니라, 빛만 많은 빛인이군!” 나는 말한다. 우리 넷은 같이 킁킁대며 육지로 낙하했다.

III. 1

어렸을 적 등산하다 나무에 손을 대고 숨을 들이마신 적이 있다. 나무에 손을 대고 숨을 고르던 땀뭍 나는 어머니 얼굴이 눈에 선하다. 어머니는 짙은 하늘색 티셔츠와 검지 않은 회색 칠부바지를 입고 모자로 햇빛을 눈에서 가리고 백팩을 메고 서계셨다. 오른손을 나무에 대고 연거푸 숨을 고르셨다. 나무의 숨을 마셨고 나무와 숨을 마셨다. 나는 아란나라 나무에 엄지를 대고 손볼을 대고 나무숨을 마셨다. 아란나라는 아란에 바람, 즉 숨이 든 것, 즉 웃어준 숨이 나무가 되어 자란 곳이었다. 아랫배 사랑과 윗배 명치 사이 중간을 아란이라 나는 부른다. 이걸 웃어줘야 해, 말아야 해, 하는 저질 농담을 들은 적 있다면 그대도 아란에 숨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 고민한 적이 있다. 아란으로 숨을 너무 많이 받으면 허파에 바람이 찬다. 허파에 바람이 차면 죽는다. 저질농담에 웃어줄까 말까 고민하는 것은 사실 심각한 고민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질농담에 웃어줬다가 허파에 바람차서 죽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아란나라 나무에 있다. 아란에 받은 숨, 중간 배 부분으로 받은 숨은 대부분 허파로 가지 않고 다른 차원의 세계, 아란나라의 나무를 길러주는 소중한 숨이 된다. 신의 시간, 신성한 시간이 흐르는 세상과 헤픈 웃음의 시간이 흐르는 아란나라를 연결하는 것은 나무였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한평생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남김없이 숨을 나누어 주고 죽는다. 죽어서는 숨이 필요없고 숨은 도리어 무거워서 죽은 혼령이 하늘로 날아가는 것을 방해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랑 없이 살아온 삶이 죽는 모습은 안타깝다. 평생 나누지 않고 쉬어둔 숨, 돈처럼 차곡차곡 쌓아놓은 숨이 무거운 짐이 되고 짐을 나누어 줄 사랑하는 사람마저 없는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은 정신을 모아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텔레파시를 보낸다. “I love you so much!” “진짜 사랑해!” 텔레파시가 성공하고 이 사랑의 의식이 성공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에게 숨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숨을 나누어 줄 만한 사람이 없으나 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무거운 짐이 된 숨을 신에게 드릴 수 있다. 사람도 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는 비참하다. 하지만 살아생전 헤픈 웃음을 너무 많이 웃어주었던 사람은 곧바로 나무가 된다. 헤픈 웃음은 곧 나누어주지 말았어야 할 숨을 나누어준 것이고 따라서 나무가 되어 그 숨을 수거한 뒤에야 죽을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나무가 된 날, 바람은 구름결 따라 불었고 구름결은 익어가는

벼의 휘황한 물결 같았고 강은 굽이치며 돌아가는 것이었다. 해는 바람이 무서운 듯 구름 뒤로, 폭신한 구름 뒤로 숨었다. 거센 바람, 사기 좋은 바람은 곧 매서운 바람이 되고 구름은 검어졌다. 바람이 갈팡질팡 아무 방향으로나 마구 불기 시작하면 소나기가 시작되는 것이다. 쏜아아, 벼를 적시고 흙을 적시고 강물에 똑똑 떨어지는 소나기는 아침이슬 머금은 풀잎에 매달려 있던 방아깨비가 비 피할 바위 같은 것을 찾게 한다. 나는 그렇게 소나기가 오는 중에 아란나라와 신의 시간이 흐르는 세상을 연결하는 나무, 세계수가 되었다.

나무는 나무평생 한 마디 말만 느끼며 살아간다. 내가 느끼는 말은 내가 만들어낸 말, 아란이라는 말이었다. 생전에 너무 아픈 사랑을 했던 나는 사랑에 숨을 모두 나누어 줄 수 없었다. 아란에 숨이 찬 채 인간 형상을 영혼이 떠났고 따라서 나무가 되었다.

사실 나무들 사이에는 어떤 엘리트 의식이 있었다. 사랑, 절망, 이상 등 원대한 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무일수록 더 크게, 오랫동안 자란 고목이었고 오리, 돌맹이 등 작은 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무는 보다 작고 나뭇잎도 적게 피었다. 나무들 중에서도 가장 쳐주는 나무는 사과라는 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과나무였다. 사과나무가 사과라는 말이 달콤하다고 느끼면 그 해에 사과가 달콤했고 짹짹하다고 느끼면 그 해에 사과가 짹짹했다.

어떻게 해서 헤픈 웃음이 죽지도 못하게 나쁜일이 되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다.

원래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다. 우리 둘은 서로를 정말 사랑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병이 들었다. 죽기 직전, 그는 나에게 숨을 나누어주고자, 마지막 숨결로 "I love you so much!"라는 말을 하고 죽으려 했다. 하지만 중간에 악이 끼어들었다. 악은 그 사람의 말을 "I love you 소우(牛) much!"로 바뀌어 들리게 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이 한 마지막 말 한마디, 사랑하는 사람이 남긴 마지막 숨으로 한 말을 듣고 나는 픽 웃어버리고 말았다. 악은 그 틈새 숨을 낚아챘다. 결국 헤픈 웃음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뜻, 마지막 숨이 악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후로 세상에서는 헤픈 웃음을 한참동안 죄악시 하다시피 했다. 하지만 하느님이 보시기에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하느님은 픽 웃어버린 나에게 아란나라를 만들고 세계수가 될 기회를 주셨다. 나무가 미소를 지을 수 있다면 나는 평생 미소를 지었을 것이다. 차츰 나처럼 해서 나무가 되는 사람이 많아졌다. 나무는 본연이 모든 생물에 숨을 나누어 주는 것인 즉, 악에게 빼앗긴 사랑하는 사람의 숨도 나무는 마음껏 쉴 수 있게 하느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사는 곳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들어와

살기 시작했다.

하느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하나지만 세상에는 여러 개의 세계가 있다. 하느님의 시간은 하나이지만 세계마다 다른 형식의 시간이 흐른다. 아란나라에서 시간이 흐르는 법은 "I love you 소 우 (牛) much!" 라는 말 그 자체였다. 아란을 아는 사람은 이 말을 듣고 웃을 수 없었다. 가만히 미소만 지을 수 있었다. 애초에 "I love you 소 우 (牛) much!" 라고 들린 말의 여운이 매초마다 시간이 흐르도록 관장했다. 그래서 아란나라는 소가 꾸는 꿈의 세계라는 말까지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사실인즉 아란나라는 나무는 사람 꿈을 꾸고, 사람은 나무 꿈을 꾸며 사는 세계였던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나무가 된 사람은 나무 꿈만,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인 나무는 사람 꿈만 꾸었다. 그렇게 아란나라에서는 사랑하는 존재가 서로에 대한 꿈만 꾸고 살았다. 그만큼 아란나라는 풍요로운 곳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지만 어쨌든 가슴 아픈 세계라는 건 부인할 수 없었다.

III. 2

태희는 사실 아란나라에서 내가 항상 꿈꾸던 사람이었다. 사회에서는 다른 인연으로 맺어졌지만 전생에 나는 태희와 사랑하는 사이였다. 전생에 나는 죽어서 아란나라를 처음 만든 세계수가 되었고 태희가 이번생에 사회에서 보살님으로 태어나는 바람에 이번 생에 나무가 되어 폭 쉬고 있던 나를 아란나라에서 끄집어 냈던 것이다. 사회에서 나는 많이 태희의 꿈 속에서 살았다. 거의를 태희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나는 전생이 잘 기억나지는 않았지만 태희라는 이름을 듣자 전율이 돋았고 그래서 이 태희라는 사람과 어떻게 해서든 인연이구나, 생각했고 그에게 친 금융사기도 치고 싶어서 친 것이 아니었다. 다만 SNS로 만난 태희가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그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다가가고 싶었다. SNS에서 나는 암을 투병중인 데다 월세를 낼 힘도 없는 가난한 여자 행세를 하며 태희에게 다가갔다. 돈좀줍쇼, 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태희는 아무 거리낌 없이 나에게 거금 1,000,000 크레딧을 적립해주며 빨리 병이 낫기를 바란다고 했다. 나는 감격한 나머지 주변에 잠자리떼가 모여드는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제국 경찰 패트롤에 딱 걸린 나는 그렇게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되었고 제국에 심장을 빼앗겼다. 하지만 태희를 잊을 수는 없었고 나는 이내 SNS로 태희에게 자백했다. 나는 암환자도 아니고 월세 낼 걱정하며 빠듯하게 사는 사람도 아니라고. 태희는 그 메시지에 응답을 하지 않았다.

비평가를 통해 태희와 다시 얹힐 줄은 상상도 못했으나 사실 전생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그럴 만도 했다.

전생의 관계를 기억해 낸 이후 나는 태희를 많이 원망했다. 나무가 되어 매일매일 숨 잘 쉬고 달콤한 꿈만 꾸며 살고 있었는데 날 굳이 사회로, 게다가 사람 형상으로 끄집어낸 이유가 뭔지 알고 싶었다. 우주를 건 게임이 끝난 후 술자리에서 나는 태희에게 그렇게 물으며 한바탕 대들었다. 태희는 대답 대신 가슴 한 컸을 쓸어내렸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이제는 여기가 아프지 않은걸.”

나는 그 대답에 만족해 한층 취기가 돌아 술을 연거푸 더 마신 기억이다.

전생에서 나는 태희와 너무 아픈 사랑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견우직녀 같은 사이였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태희도 좋아했고 태희가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했다. 우리는 귀여운 송아지 한 마리를 암소와 함께 기르며 농사를 짓고 행복하게 살았다. 허나 태희가 죽을 병에 걸렸고 시골 농촌에서는 달리 손쓸 방도가 없었다. 죽기 직전 태희는 나에게 사랑을 남김없이 고백하며 숨을 나누어 주었는데 나는 같이 키우던 송아지 녀석이 눈에 거렸나 보다. 소는 아란을 아는 동물이다, 나는 생각했었다. 죽음과 사랑 사이 그 어떤 구수하면서 담백하고 말만 들어도 글썽이는 눈물이 나는 아란이라는 말을, 나는 송아지 눈매에서도 보았었다. 그런데 나는 소고기를 좋아해 즐겨 먹었다. 제국 소고기 양산소에서 소의 조직 부위만 시험관으로 양산한 고기였지만 어쨌든 그건 소고기였다. 그래서 나는 “I love you so much!” 라는 말에서 송아지의 눈매가 아른거렸고 웃어서는 안 될 웃음을 픽, 터뜨려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나의 마지막 사랑 고백을 듣고 웃다니, 내님도 참 무심하셔라, 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한 채, 전생의 태희는 죽었다. 죽고 하느님이 가없이 여겨, 그리고 그 생에서의 공적을 보아 다음 생에는 보살로 태어나도록 살피 주셨다. 나는 꿈쩍없는 나무가 되어, 세계수가 되어 몇만 번의 새해 해돋이를 보았다. 그리고 종국에는 다시 태어난 태희가 아란나라 아닌 사회에서 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나는 사회로 나왔다. 누누이 말하지만 나무일 때가 제일 좋았다. 나는 벌목될 걱정이 없는 울창하고 숨겨진 밀림에서 자란 나무라서 그랬는지도 모른다. 내가 벌목될 위기에 처하기만 하면 하느님은 나를 과거로, 또 미래로 보내곤 하셨다. 세계수가 벌목되면 세상이 멸망하기 때문에. 하여 태희가 나를 꿈꾸기 시작한 것도 세계수가 벌목될 위기에 처해 있어서, 하느님도 혼자서는 도울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른다.

나는 전생에 심장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지막

숨을 악에게 빼앗긴 게 한스럽고 부끄러워 심장이 반으로 쪼개진 채, 마음에 금이 간 채 죽었다. 죽어서 나는 하느님께 아란나라에서 쉬어 가고 싶다고 했다. 그때 하느님은 아란나라라는 세계를 만드셨고 나는 거기서 수천년동안 쪼개어져 버린 심장을 치유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태희야,” 나는 꿈결 속에 말했었다. 꿈에서 웅, 하는 소리가 들려왔었다.

“나는 너를 잊을 수 있는 날에야 심장이 바로 될 것인가 싶다.” 꿈속의 태희는 그것을 몹시 싫어했다. 그는 내가 잊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내 심장이 어서어서 낫기를 원했다. 그래서 태희는 보살님이 되어, 심장이 온전치 못한 일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말하자면 하느님과 짜서 내게 기회를 준 것이다.

우주를 건 게임에서 이겼다고 해서 내 상처가 다 나은 것은 아니었다.

제국이 심장을 빼앗으려고 심어놓은 무전기가 있던 자리는 아직도 옥싯옥싯했다. 그날 비평가가 임의의 수술 비슷하게 무전기를 뽑긴 했지만 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나을 리가 없는 것이다. 비평가에게 그것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어찌됐든 그는 나에게 있어 은인이었다. 술자리에 앞서 그는 심장에 빨리 나으라고 흑마술 걸린 부적을 붙여주었고 나는 그것이 고마웠다. 다소 공포스럽게 심장에서 무전기를 뽑아낸 것도 원망하지는 않았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야만 했었으니까, 그렇게 될 뜻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비평가는 그것을 몹시 미안해했고 나에게 용서를 빌기까지 했다. 나는 비평가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제국에서 심어놓은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게임은 끝났으나 제국은 아직 건재했다. 내부의 균열이 임시방편하지 못할 정도까지 치다랐으나 자본주의도 거짓말처럼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았다. 다만 인종자본주의는 끝났다. 블랙홀에 들어간 빛인은 거기서 나오기 위해 빛을 다루는 능력을 잃었고 흡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 밖으로 나왔다. 하지만 비평가는 아직 안도의 숨을 돌릴 수 없었다.

“빛인들이 아란나라로 들어갔단 말ियो?” 승리를 축전하는 술상에서 나는 비평가에게 물었다.

“일이 그렇게 됐소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빛인이 아니라, 제국 인공지능이 아란나라로 들어간 것 같소.”

“제국 인공지능이 거기는 왜요?”

“제국 인공지능은 말ियो, 계산불능한 것이요.” 그는 말하고 쓴 술잔을 넘겨 마셨다. “하지만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아는 것은, 그것은 분명 사람은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하는 Bad이고, 나무는 번창해야 할 Good이라고

생각하오. 그 논리가 아주 허무맹랑하지도 않소. 인공지능에 따르면, 모든 아이는 나무를 좋아하오. 그리고 모든 아이는 어른을 싫어하오. 따라서 사람은 사라져야 하고 나무는 번창해야 한다는 것이오. 단순히 무시할 만한 논리는 아니지 않소?” 그의 눈빛이 반짝였으나 입술은 가벼운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주의 게임을 이긴 것도 수포로 돌아갈 수 있소. 말하자면, 제국 인공지능은 아란나라 나무와 손을 잡고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고 있소.” 불과 전생에만 해도 나무였던 나는 세상을 멸망시키고 싶다는 나무들의 뜻에 뜨겁게 공감하는 바 있다. 하지만 나는 사람이다. 나무들이 그렇게 하게 둘 수는 없는 것이다.

“내가 아란나라로 돌아가야겠어요.” 나는 황급히 말했다. “금이 간 심장을 완전히 치료하려면, 어차피 아란나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고 느꼈소.”

비평가는 절대 안 된다면 만류했고, 나는 비평가를 설득한 끝에 둘이 함께 들어가기로 했다.

태희는 사회에 남기로 했다.

“내가 아란나라에 들어갔다는, 너가 꾸던 달콤한 꿈에 사로잡혀 꿈이 되고 말 거야.”

나는 사실 아란나라로 돌아가야 할 이유가 한가지 더 있었다. 다섯 살 때 행방불명된 어머니가 거기 계실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나는 대체로 고아로 자랐다. 아버지는 원래 없었고 어머니와 이 아파트 저 아파트 전전공공하며 살았다. 그런데 다섯 살이 되던 날 어머니가 행방불명되었다. 나는 혼자서 외로운 생일을 보냈고 그 후로는 제국 고아원에서 살았다. 그 끔찍하고 칙칙한 곳을 떠나게 된 18번째 생일을 나는 영원히 잊지 못할 것이다. 그곳은 지옥이요 감옥이었고 나를 그런 곳에서 자라게 한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기도 했었다.

나는 나무였을 때 태희 꿈도 꾸었고 어머니 꿈도 꾸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전생의 나와도 연결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무로써 낀 어머니 꿈대로 사회에서 어머니가 생겼던 것이다. 불가사의한 일이지만 나는 그래서 어머니가 아란나라로 돌아갔음이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척박한 사회에 비해 아란나라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그럼 어머니는 누구 꿈 속으로 들어갔을까, 생각하면 분명 아버지 꿈 속으로 들어갔으리라 추리했다. 나는 아란나라로 돌아가서 어찌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둘 다 만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꿈에서 깨워 사회로 데리고 나올 작정이었다.

“눈물겹군.” 네모는 벌써 열잔째 술을 마시며 말을 흘렸다. 승리 축연

자리라고 모든 도움준 사람이 초대되었지만 나는 네모를 몹시 싫어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된 조지도 성령으로 참석, 분위기를 한창 돋구아주고 있었다.

다섯 살 된 내가 제국 고아원에 들어갔을 때 친한척을 하던 간수가 있었다. 간수는 나에게 쪼꼬렛도 사주고 알사탕도 사주고 했다. 어느날 나는 여느 날처럼 또래 아이들과 제국 TV를 보고 있었는데 간수가 내게로 다가왔다. 또 쪼꼬렛을 한웅큼 주더니 내 바짓가랑이로 손을 옮기는 것이었다. 그 순간은 정전기 나서 고장난 텔레비전처럼 정확히 기억되진 않는다. 그는 곧 내 바지 속으로 손을 옮겼다. 또래 아이들은 보면서 못본척, 못보면서 본척이었다. 간수는 나의 성기로 손을 옮기고 마음껏 만졌다. 나는 그것이 망측하고 싫어서 간수의 손을 잡고 바지에서 빼려 했다. 입으로 싫어, 하고 말했다. 간수는 약이 올라서, 너같은 것, 성기 좀 만져도 돼, 하고는 계속해서 나를 만졌다. 나는 그것이 너무너무 싫었지만 말리는 간수도 없고 해서 일은 계속 반복되었다. TV를 볼 때만 되면 간수는 다 아는 중 몰래, 몰래 다 아는 중 나의 성기를 만졌다. 차츰 나는 TV라면 질색을 하게 되었고 방에 틀어박힌 채 수학공부만 대신 열중했다. 이빨에 공식이 박히도록 이를 꼭 물고서 수학문제만 풀었다. 이에 공식이 박히지는 않았지만 나는 앞니에 금이 가서 나중에 치과를 찾아갔을 때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열세살 쯤 먹었을 때 나는 전생에 아란나라 세계수, 그 전생에 태희와 사랑했던 농부였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나를 사람 형상으로 사회에 다시 태어나게 한 태희를 몹시 원망했다. 나를 고아원에 가게 한 엄마도, 본적 없는 아빠도 몹시 원망했다. 나는 그렇게 한참동안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모두 몹시 원망했다.

열네살 때 나는 고아원 옥상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 했고 그로부터 8년후, 스물두살 때 나는 비평가를 만났다. 그리고 비평가와 함께 1년에 걸쳐 우주를 건 게임을 플레이해 이겼다. 우리는 분명 승리했고 나는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기도 했는데 곧 아란나라로, 내 전생의 나라로 떠난다니 가슴 한켠에 아픈 부분이 부어오르는 듯 했다.

III. 3

서울 언저리에 속이 빈 나무가 있었다. 내가 아란나라에서 나왔을 때 하느님이 아란나라와 세상을 연결하기 위해 그 나무에 흑마술을 걸어놓으셨다. 나와 비평가는 그 나무로 걸음을 걸어갔다. 머릿속이 복잡해 한 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다. 서울 노을은 빨갭게 붙은 구름들을 가장자리부터 물들였다. 가는 날은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나무 앞에 도착한 우리는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나무에 엄지손가락을 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숨을 마칠수록 주위가 희끄무레해지는 것 같았다. 갑자기 눈이 나빠진 듯, 멀리 있는 것은 포개어지지 않은 상으로 보였고 수채화처럼 보였다.

“우리는 이제 나무의 꿈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비평가는 말했다.

“I love you 소 우 much!” 라는 말이 메아리처럼 매초 들렸다. 먼 곳에서 들려오는 가슴 쓰라린 말, 그러나 어쩐지 웃어버리고 싶은 말. 웃음이 헤프면 안돼, 하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시간을 듣고 웃으면 이 세계에서 시간이 없는 세계로 쫓겨날 수 있어요. 주의하세요.” 비평가가 말해주었다. 아니, 나는 그 말, 시간이 된 그 말을 듣고 결코 웃을 수 없었다. 그것은 수천년 세계수로 살면서 한 다짐이기도 했고 치유된 결과이기도 했고 그 말에 웃는다는 것은 곧 금이 간 내 심장을 두고 웃는다는 것, 그래서 심장이 이번에는 금이 가는 것에 모자라서 아주 쪼개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제국한테 빼앗긴 바 있는 나의 심장은 어떤 면에서는 우스우기도 했다. 심장에서 무전기를 빼는 비평가의 수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그 말에, 시간의 말에 웃었을 것이고 심장이 쪼개졌을 것이고 시간이 없는 세계에 떨어졌었을 것이다.

내 심장에 대고 웃는 버릇은 고아원에서 간수에게 성폭행을 당한 이후도 생겼다. 그때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오른팔이 왜인지 옥싯옥싯한다. 팔 깊은 곳, 근육 뭉친 곳 속이 간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오른팔에 있는 뼈를 쪼개어 뽀족하게 만들어 오른팔 안속을 벅벅 긁어주고 싶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한다. 나는 고아원에서 있었던 일은 입밖으로 잘 꺼내지 않는다. 비평가에게만은 그 일을 털어놓았다. 비평가는 동정이 아니라 억, 하고 숨을 쉬지 못했다. 이야기를 털어놓는 내내 그는 숨을 쉬지 못했다. 이야기가 끝난 후 그는 주르륵 눈물을 흘리더니

“이제 그런 일은 없소. 명심하오. 내가, 우리가, 흑마술단이, 내가 지켜줄 거요.” 라고 말했고 나는 말라버린 눈물이, 눈물의 독이, 말뚝 박아놓았던 그 독이 터져서 한참을 비평가의 품 속에서 울었다.

“이제 그런 일은 없소.” 비평가는 같은 말만 되풀이하며 굵은 눈물줄기를 잇다라 흘러내렸다. 나는 그 이후로 비평가가 좋았다.

“스스로의 심장에 대고 웃지 말아요.” 라는 비평가의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건만, 심장에 무전기가 박혀있던 터라, 픽 웃어버리고 말았다. 다시 비평가가 그런 말을 꺼낸다면 결코 웃지 않으리, 나는 다짐했다.

아란나라에 도착한 우리는 도착하자마자 제국 인공지능과 나무들의

표적이 되었다.

“사회에서 인간이 들어왔다!” 나무들은 나무말로 속삭였다.

“표적 집중.” 인공지능은 우리쪽으로 수만의 잠자리떼를 보내어 꼼짝도 못하게 하였다. 나는 재치기를 하였고 수천마리 잠자리떼는 나가떨어지듯 하더니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계속 얼굴 언저리에서 웅웅거렸다. 나는 연거푸 재치기를 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해요!” 비평가는 잠자리떼를 넘어 소리질렀다.

“문장 검사, 완료. 검사 결과, 거짓. 평화를 원하는 인간은 없음, 사실.” 인공지능이 말했다. 나는 순간 세계수가 되었다.

“세계수님! 돌아오셨군요!” 사과나무가 대표로 나를 환대했다. 나는 나무들의 증오가 느껴졌다. “증오”라는 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무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나무의 말인즉슨 간단했다. 인간은 나무에 기생하며 살아간다. 인간은 본래부터 말에 담긴 느낌을 느끼는데 어수룩하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담긴 느낌을 잘 알지 못하니 한마디로도 큰 싸움이 나고 한마디로도 숙명이 바뀐다. 나무들이 볼 때 그것은 자연스럽지 못했다. 제국 인공지능은 인간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 시뮬레이션 된 인간은 나무의 도움을 받아 말 한마디 한마디의 느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나무와 인간은 진정한 공생관계가 될 것이다. 시뮬레이션 된 인간은 나무를 함부로 벌목하지도 않고 평화를 사랑할 것이다. 그것은 “벌목”, “평화”,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무들이 장담했다. 나는 “사랑”이라는 말을 느끼며 살아가는 나무와 대화를 요청했다.

“사랑이란 어떤 느낌입니까?”

“사랑은 아프기도 하지만 궁극에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랑이 궁극에 가서도 아프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무가 되면 되지요.” 그는 나무웃음을 지었다.

“그럼 시뮬레이션 된 인간은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느끼고 싶으면 잠시 나무가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나무는 확실히 사랑을 느낄 수 있지요.” 나는 말했다.

“네, 현재로써는 인간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사랑나무는 말했다.

“인간은 평화를 사랑하기는커녕 증오합니다.” 증오나무도 함께 고개를 끄덕여다.

“나는 아람을 사랑해요!” 비평가가 뻗 소리를 질렀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무들이 어슬렁거리기 시작했다.

“문장 검사, 완료. 검사 결과, 거짓. 비평가는 심장을 나에게 조종당하고 있음, 사실.” 제국 인공지능이 말했다. 나는 머리를 뺄, 하고 얻어맞은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요! 사실이요. 나도 제국에 대항하는 범죄를 저질러서 심장에 무전기가 박혔소.” 나는 비평가의 말을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사실이라고 했다.

“나무에게 거짓말 하는 사람이다! 얼른 죽여!” 나무가 말했다. 나무는 뿌리를 뽑아 비평가의 심장으로 뺐었다. 억, 하는 소리와 함께 비평가의 심장에는 나무 뿌리가 박혔다.

비평가는 그렇게 죽었다.

나는 눈에 보이는 게 없었다. 비평가가 사라진 세상은 멸망해 마땅한 세상이었다. 나무로써 나는 복수같은 관념은 없었다. 그저 세상이 멸망해야 마땅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만 알았을 뿐이다. 나는 크게, 가능한 한 크게 하품을 하듯이 숨을 몰아쉬었다.

세상을 멸망시킬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해충이다!” 바람은 말하는 듯 했다. 메뚜기떼 같은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람에는 메뚜기가 없었다. 원한이 가득했을 뿐이었다. 원한의 말소리가 바람을 가득 채웠다. 세상에 쌓이고 쌓인 모든 원한. 그 원한이 바람 속에서 해충처럼, 부는 곳에 있는 모든 것을 파괴할 기세로 불기 시작했다. 나무들은 바람에 어떻게 견디어야 하는지 알았다. 그들은 잘 견딜 것이었다. 지금 부는 바람은 세상을 멸망시킬, 사람의 가증할 원한을 증폭시켜 사람이 사람을 먹어치우고 서로 죽이게 할 바람이었다. 세상을 멸망시킬 바람은 그렇게 잘 불었다. 바람에 색깔이 있었다면 아마 회갈색, 회갈색 바람은 해충떼거지처럼 온 세상을 휩쓸 터였다. 세상의 모든 원한을 담은 바람에 살결이라도 스친 사람은 아수라로 변해 원한을 위해 눈 앞에 움직이는 것은 모두 베고 찢고 물어뜯을 터였다. 그런 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하지마.” 나지막이 어머니의 음성이 들린다. 18년만이다. 어머니도 나무가 되신 모양이다. 18년만이지만 틀림없는 어머니의 목소리고 어머니의 단호함인 것이다.

“어머니?” 나는 목을 놓아 묻는다.

“하지마.” 어머니는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하지말라면 하지 마, 임마!” 태희 목소리다. 태희가 도끼로 나를 찍어 넘어뜨렸다. 나는 사람 형상으로 변신한다.

“나무는 이제 사람이 사랑을 아는 것을 알게 되었소!” 나무들이 일제히 소리친다. 태희는 커다란 도끼를 들고 연거푸 썩썩댄다. 아이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가 말한다. 나무들은 바람을 잠재우기 시작한다. 제국 인공지능은 나무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 의식 없는 깡통이 되어버린다.

III. 4

사방이 아스라이 어둡뿐이다. 나는 안개를 가만히 응시한다. 바람이 걷히면서 안개가 되었고 세상을 멸망시킬 바람은 세상을 멸망시킬 안개가 되었다. 나의 한 때문이다. 비평가가 황천강을 건너기 전에 나는 비평가를 데려오기 위해 지금 이 연옥 한가운대를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연옥까지 퍼진 안개는 매캐하다. 내가 내 한에 취하면 눈에 보이는 게 없는 도깨비가 되어 버릴 것을 직감한다. 나는 비평가의 눈을 기억한다. 그 눈은 거짓말 하던 눈이 아니란 걸 직감한다. 그래서 그를 찾아 걷고 또 걷는다. 연옥에선 나침반이 먹통이다. 비평가가 어디로 갔는지 추리할 만한 건 심증뿐이다. 나는 그렇게 심장을 따라 앞으로 앞으로 걷는다. 비평가를 찾아야한다. 황천강을 건너기 전에 찾아야 안개는 걷힐 것이고 안개가 걷혀야 세상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심장이 이끄는 대로 심장을 따라간다. 이래서는 늦기 전에 비평가를 찾지 못할 것 같다. 나는 황천강 기슭부터 하류까지를 죽 훑도록 결정했다. 그래야 비평가를 찾을 기미가 보일 것 같았다. 황천강 기슭은 껌껌하다. 건너에 호롱불이 하나 피어 있을 뿐 주위 전체가 껌껌하다. 절대 저 호롱불을 따라서 걸으면 안 된다, 나는 스스로에게 암시한다. 저걸 따라 걷다가는 황천강 건너 도깨비 격이 되어 절대로 죽지 못할 수도 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법이 그런 것이다. 나는 까만 밤, 밤인지 뭔지 모를 어둠 속으로, 호롱불을 보고 직각으로 해서 걷는다. 한차례 물에 침병침병 발이 닿는다. 실수였다고 하느님에게 고하면서 나는 어둠 속을 계속 걷는다. 상류 쪽으로 비평가가 갔을 것 같지는 않다. 그쪽에선 피비린내가 미세히 풍겨오기 때문이다. 황천강 상류는 싸우다 죽은 사람들이 건너는 모양이다. 나는 그것이 싫다. 비평가도 싫어하리라 직감한다. 하류에서는 식물의 냄새가 소곤소곤 풍겨온다. 나는 비평가가 틀림없이 하류로 갔을 것이라 직감한다. 그리고 하류로 걸다가 상류 쪽으로 걸어 올라오던 비평가와 마주쳤다.

“왜 이쪽으로 올라와요?” 내가 내뱉은 첫 질문이었다. 갑자기 사람을 잘못 봤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저쪽에서 피비린내가 나길래, 피투성이 된 내 심장이 저어기 있나

해서 건넌 중이었습니다.” 비평가를 보니 가슴이 뻥 뚫려있다. 정말 심장을 어디 흘리고 온 것이다.

“하지만 식물냄새는 이쪽에서 나는 걸요. 비평가님 심장은 나무와 합심되지 않았습니까?” 나는 묻는다.

“그럴 수도 있구려. 하지만 나는 내 심장에서 나는 피는 내가 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이지.” 비평가가 두꺼비 같은 눈살로 날 본다. 소름이 짹 끼친다. 비평가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었나.

“그럼 이쪽에서 비평가님의 심장을 찾을 수도 있으니, 갈라져 찾아봅시다.” 나는 말한다. 사실 더 이상 비평가와 동행하기 싫다. 비평가가 황천강을 건널 것 같지는 않다. 게다가 나는 비평가의 심장이 정말로 찾고 싶고 그건 좋은 냄새 나는 곳에 있으리라 직감한 것이다.

“내 심장은 내가 알아요. 이쪽으로 오시유.” 비평가가 말했고 나는 별수없이 비평가를 따라가기로 했다.

비평가와 나란히 황천강을 따라 걷는다. 비평가는 강가 넘어 호롱불을 무서워하는 나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듯 골려주려고 한다.

“저 호롱불에 담긴 전설이 있는데,” 하고서는 제법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이야기가 절정에 치달았을 때 나는 엉겁결에 짹, 하고 소리를 질렀고, 비평가는 찾았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과연 비평가의 심장이 푸르스름하게 황천강 상류에 내팽개져쳐 있는 것이다. 피비린내가 코를 찌른다. 비평가는 아무말 없이 심장을 줍더니 가슴에 난 구멍에다 쑤셔 넣는다. 그리고 거기에다 부적을 붙인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비평가와 돌아가는 길만 남았다.

“나는 호롱불을 따라 가고 싶은데,” 비평가가 말한다. 주변의 안개가 짹 두터워진다. 나는 안 된다고 말하다 종내에는 흐느낀다. 나랑 돌아가자, 너가 강을 건너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아니 내가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말한다. 비평가는 아무 말 없이 내 손을 잡는다.

“지금 강을 건넌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건넌다가 돌아오는 수도 있어요.” 나는 눈물범벅이 되어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따진다.

“사실 지옥에 한번 갔다 와야 할 용무가 있소. 내 부모님이 거기 가 있거든.” 비평가는 억울하게 지옥에 간 부모님 이야기를 한다.

“정녕 강을 건너도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말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잖소. 이제 저승법도 바뀌고 있소. 예수님은 억울하게 지옥에 간 사람을 남김없이 구원하고 싶어 하오.” 나는 비평가의 말을 믿는다.

“그러면 나도 따라가겠어요.”

“좋을 대로.”

그렇게 우리는 호롱불을 따라서 걷는다. 강을 건넌다. 첨병첨병, 황천강 물이 얼굴에 튄다. 물맛이 달다.

“물을 마시지는 않도록 주의하시오. 기억을 잃을 수 있으니.” 나는 비평가의 손을 꼭 잡고 입은 양 다물고 강을 계속해서 건넌다. 강은 꽤 깊어지지만 목 위로 물이 차지는 않는다. 강을 다 건너 호롱불에 도착한다. 호롱불은 아무 지지대도 없이 공중에 떠 있었다. 비평가는 호롱불을 뚝 떼어 손가락 위에 올려놓았다. 황천강은 우리가 건너간 자국 그대로 굳었다.

“이렇게 하면 되돌아가는 강이 건너온 강과 같은 강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소. 건너온 강과 다른 강을 건너가면 우리는 이승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호롱불을 여기다 두면 우리가 건너온 흔적이 사라져, 건너왔을 때와 다른 강이 될 거요.” 비평가는 호롱불 빛이 강에 닿지 않게 조심스레 손으로 감싸 포갠다. 그리고 우리는 걷기 시작했다.

“나는 빛인 양부모가 있소. 흙인 부모는 지옥에 갇혀 있소.” 비평가가 말했다. 그는 계속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빛인 양부모는 아시다시피 이제 망한 코카콜라의 이사로, 대주주로 있구요. 빛인 양부모라는 건 이용해먹을 만한 구석이 많아요.” 그는 말을 이었다.

“뭐, 이제 인종차별주의가 끝났고 그들도 더 이상 빛인이 아니지만은.”

황천강을 건너고 우리는 한참을 걸었다. 두갈래길이 나왔다. 천당으로 가는 길, 지옥으로 가는 길. 우리는 지옥으로 가는 길로 해서 걸었다. 한참을 걷고 비평가는 이내 자리에 무릎 꿇고 앉았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요.”

비평가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섬광이 하늘에서 내려와 비평가의 머리 꼭대기 숨구멍에 닿았다.

III. 5

빛인들은 오랫동안 천당을 점령하고 흙인들은 모두 지옥에 보냈었다. 억울하게 지옥에 간 흙인들은 여기가 우리 땅이다, 하고 주인의식을 가지며 열심히 땅을 일구었다. 지옥은 차츰 번성해갔다. 천당에서도 나지 않는 방울토마토, 오이, 가지 등을 지옥에서 길렀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뜻으로 세워진 천당과 지옥이 아니었다. 천당에서는 항상 좋은 냄새가 났고 지옥에서는 나쁜 냄새가 났다.

그것은 세상의 구조상 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세상이 바뀔 지금, 비평가는 지옥에서 흠인들을 설득해 천당에 이주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부분의 빛인들을 지옥으로 옮기고, 대부분의 흠인들을 천당으로 옮기는, 대이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이 어머니와 나를 연결해주셨어요.” 머리에서 하늘까지 이어진 섬광 같은 빛을 가리키며 비평가가 속삭인다. 아닌 게 아니라 빛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장소가 한 곳 보였다. 지옥 깊숙이였다. 그렇게 ^ 모양으로 비평가는 어머니와 연결되었다.

“아이고, 티르크니?” 어머니가 말했다. 어머니 말소리가 빛을 타고 들렸다.

“어쩌다 이렇게 일찍 왔니?”

“어머니, 저 안 죽었어요. 어머니를 천당까지 모시러 왔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우리는 지옥이 더 편하다! 이 척박한 땅을 에덴동산처럼 가꿨단 말이야. 대관절 우리가 천당에 가야할 이유가 뭐가 있니?” 지옥 땅에 천둥 번개가 내렸다. 먼곳에 있는 활화산에서 뜨끈한 기운의 불이 치솟았다. 뜨끈한 바람이 불었다. 그러더니 뜨거운 소낙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물에 젖은 쥐 꼴이 된 비평가가 말했다.

“아니, 어머니.” 그리고는 그는 머리의 빛을 향해 방귀를 북 하고 꾸었다.

“냄새가 고약하구나!” 어머니가 빛을 통해 냄새를 맡고 빛을 통해 말한다.

“네, 어머니. 고약하지요?” 비평가가 말했다. “천당에서는, 이 냄새가, 고약한 게 아니고, 괜찮은 냄새예요.” 그의 눈이 번뜩였다. 천당에서 맡는 냄새는 뭐든지 지옥보다 낫다는 게 사실이었다. 천당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없었다. 똥오줌 냄새도 괜찮았다. 몸에서 나온 거니까.

“하유 그럼, 꼭 천당으로 가야 하겠구나.” 어머니 말소리가 들렸다. 하늘에서 무수한 빛이 쏟아졌다. 한줄기 한줄기 빛마다 지옥에 억울하게 있는 흠인 하나의 머리로 떨어졌다.

“이제 주문을 외우면 됩니다, 어머니.” 비평가가 말했다. “나는, 천당에 가고 싶어요! 싶어요! 싶어요!” 짹, 하는 소리와 함께 천둥번개가 휘몰아쳤다.

“…….싶어요! 싶어요! 싶어요!” 흠인들이 일제히 주문을 열창했다. 빛이 그들을 감쌌다. 따뜻한 빛은 그들의 몸을 어루만져 주었다. 구수한 빛내음만 남긴 채 그들은 모두 천당으로 차원 이동했다.

나와 비평가는 저승에서 거슬러 올라와 이승으로 나왔다. 호롱불을 제자리에 갖다놓고 황천강을 도로 건너 나왔다. 나는 비평가와 동행하는 길이 좋았다. 그러나 비평가는 말했다.

“내가 제국 인공지능을 이용했소이다. 나는 꼭 지옥에 가서 어머니를 천당으로 안내해야 했소. 제국 인공지능이 내 말을 거짓말이라 할 줄 알고 그런 말을 했던 게요.”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말을 두고 한 말이었다. 그게 거짓말이었다고, 제국 인공지능을 이용하기 위해 한 말이었다고 시인하는 셈이었다. 나는 혹시나 했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비평가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고 내가 사랑이라는 관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관찰이라도 하는 것 같았다. 비평가는 끝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이승으로 돌아온 날, 바람과 안개는 걷혔다. 나는 어머니를, 그리고 어머니와 함께 있던 아버지를 꿈에서 깨워 아란나라에서 사회로 데려왔다. 아란나라는 그런 식으로 사회에 흡수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हे픈 웃음을 짓지 않았다. 세상을 멸망시킬 바람에, हे픈 웃음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사무쳐 있든지, 사람들은 모두 빠져리게 느꼈다. हे픈 웃음은 그렇게 사회에서 사라졌고 사회는 웃음을 더 믿을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하지만 나만은 हे픈 웃음의 버릇을 버리기 힘들었다.

“비평가님,” 나는 한번 어리광을 피웠다. “내 웃음 हे픈 버릇 좀 고쳐 주세요.”

“웃음 हे픈 버릇이라면,” 그는 대답했다. “내가 하는 농담만 안 웃어주면 돼요.” 나는 하지만 그 말에 꿈쩍없이 웃음을 터뜨렸다. 비평가는 끝내 나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이런 내 모습을 좋아했다.